

사람과 기술의 관계를 설계하는 디자이너 황서영입니다

EDUCATION

UNIST(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학과 석사 (GPA: 4.18/4.3)

2024.03 – 2026.02

UNIST(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학과 학사 (GPA: 4.02/4.3)

2020.03 – 2024.02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7.03 – 2020.01

EXPERIENCE

Expressive Computing Lab, UNIST

디자인 연구 보조 | 사용자 연구와 MVP 배포 중심의 인간-AI 상호작용 연구

2024.02 – 2026.02

학부 인턴 | UI/UX 디자인 및 미디어아트 중심의 인간-AI 상호작용 연구

2022.01 – 2024.02

AWARDS & CREDENTIALS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국가기술자격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026.08

Red Dot Design Award | UI/UX 디자인

BBB: Revolutionizing Cross-Language Communication Service in a Multilingual World

2023.07

CONTACT

M 010 3003 5652

E hseoyeong.design@gmail.com

LinkedIn

[linkedin.com/in/h-seoyeong](https://www.linkedin.com/in/h-seoyeong)

Website

<https://seoyeong-hwang.com>

Contents

PROJECT 1

Augmentiary

AI의 해석을 재료 삼아
기록을 자기 이해로 연결하는
AI 일기 서비스

p.3



PROJECT 2

FramePilot

디자인 의사결정 보조를 위한
AI 기반 UI 디자인 피드백

p.15



PROJECT 3

BBBK Redesign

통역 봉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흐름 및 모바일 UI/UX 개선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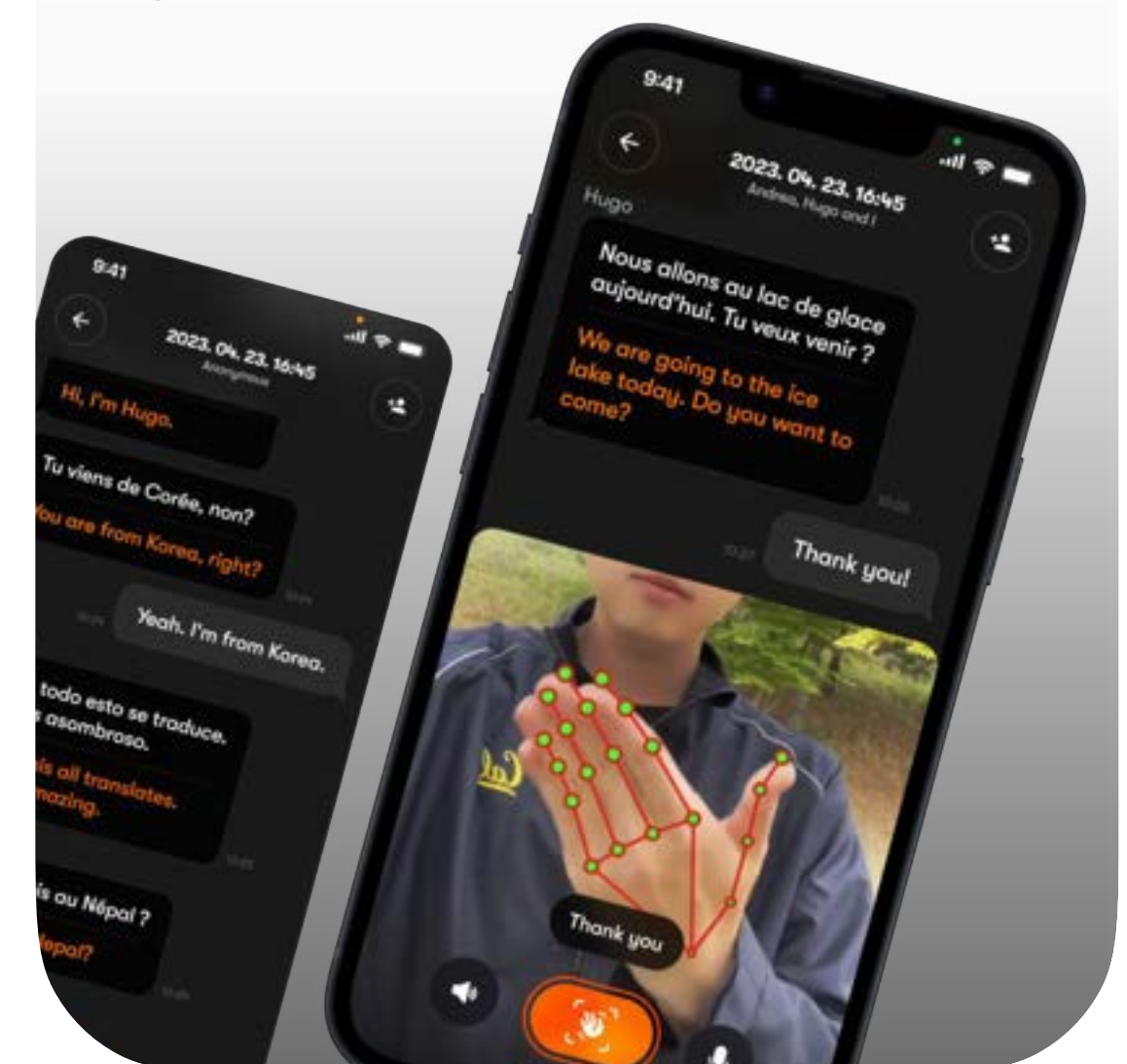


PROJECT 4

BBB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통역 서비스

p.32



Augmentiary

AI의 해석을 재료 삼아
기록을 자기 이해로 연결하는
AI 일기 서비스

SOLO PROJECT

AI 활용하여 Next.js + Supabase 기반 MVP 구현,
25명 대상 4주 배포 검증 수행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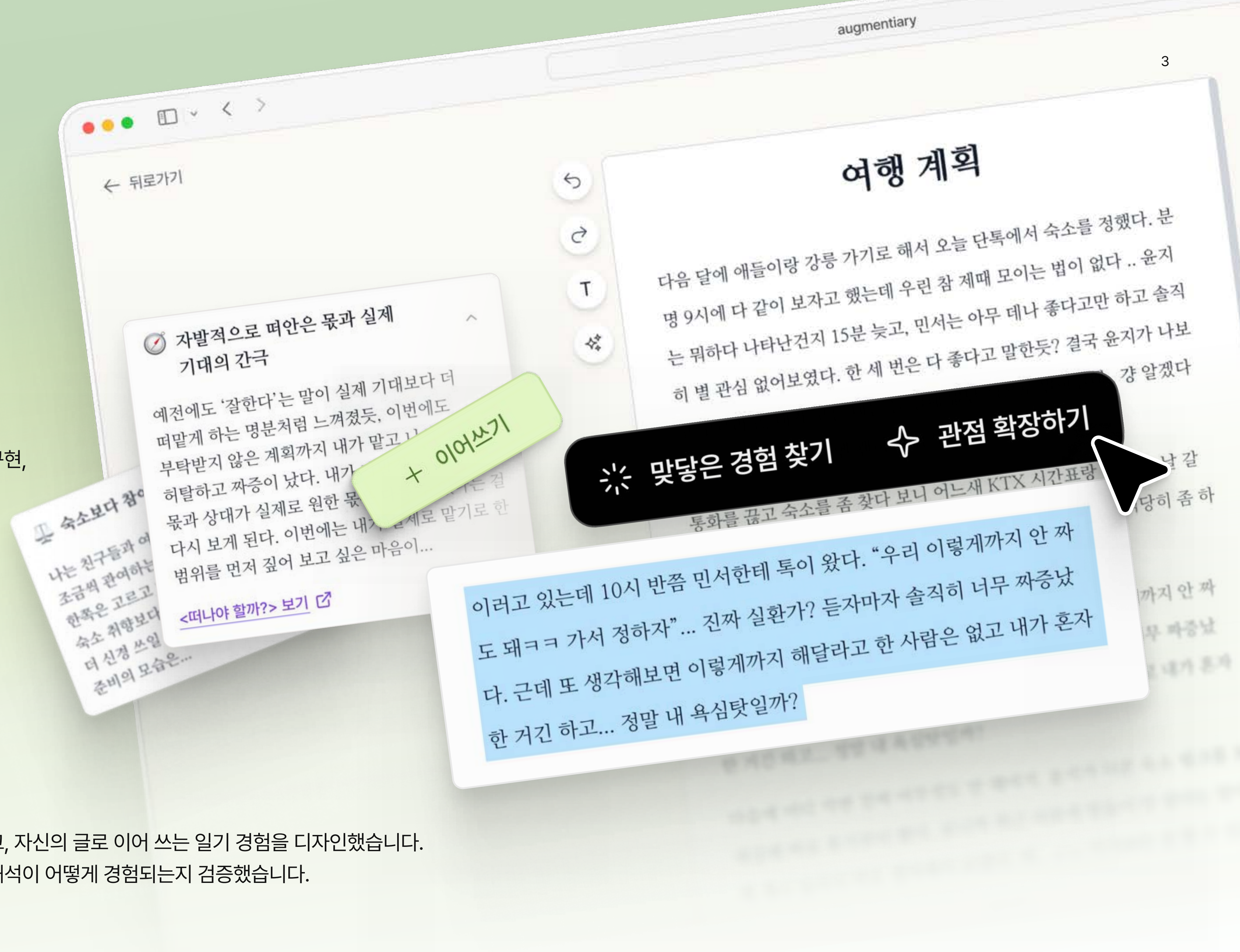
2024.12 - 2025.12

OUTCOME

HCI 국제 학회 ACM DIS 2026 게재

DIS²⁰²⁶

선택한 문장을 여러 관점과 과거 경험에 연결하고, 자신의 글로 이어 쓰는 일기 경험을 디자인했습니다.
4주간 배포하여 사용자의 일상 속에서 AI 생성 해석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검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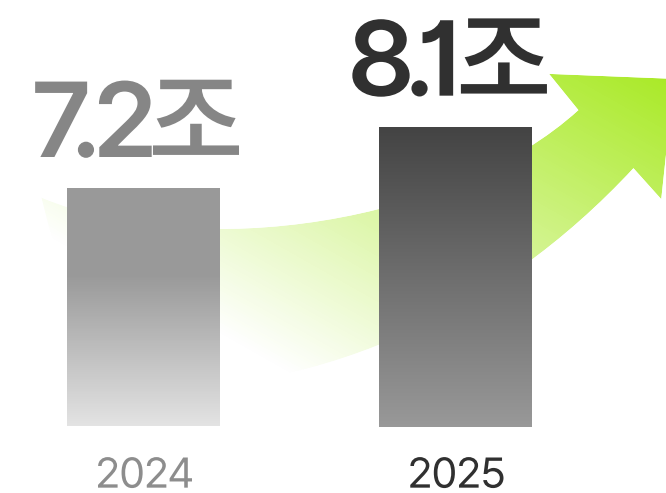


AI가 일상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준다면 어떨까요?

많은 일기 서비스는 질문, 감정 분석 기능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여전히 사용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많은 기록, 그럼에도 얇은 통찰

빠르게 성장 중인
글로벌 디지털 저널링 시장 규모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2025

기록과 추적에 집중된
기존 서비스

Top 저널 앱들의 주요 기능

70% 감정/습관 추적
60% 가이드 질문

Choosing Therapy, 2025

개인적 경험을
해석하는
AI 피드백

AI의 기회 영역

일상 관리와 자기탐색이
주요 AI 활용처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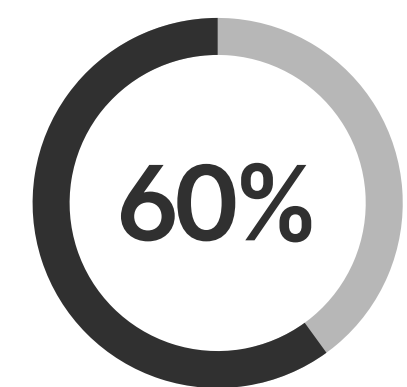
생성형 AI Top 5 활용 사례

2위 일상과 목표
정리하기
3위 삶의 목적
찾기

Harvard Business Review, 2025

개인 맥락을 활용하는
AI에 열려있는 사용자들

맞춤형 AI 결과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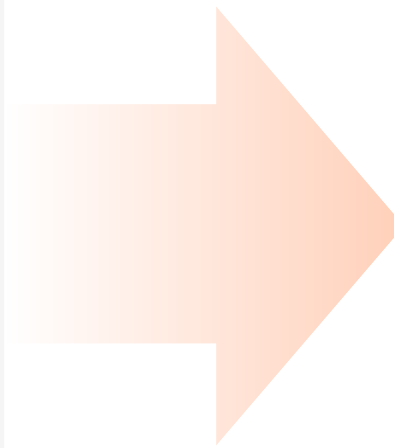
Morning Consult × American Express, 2025

AI의 해석은 성찰을 도울 수 있지만, 생각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얼마나 좋은 답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넘어,
개인적인 글쓰기 안에서 AI의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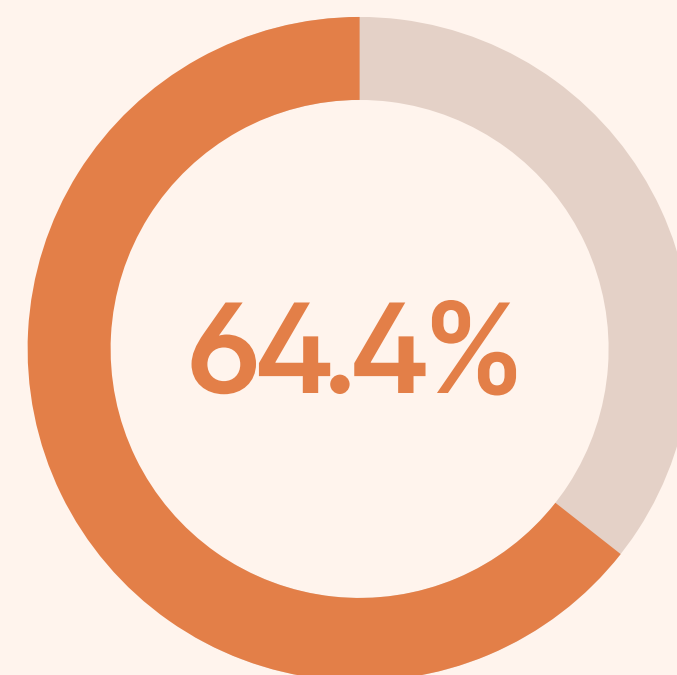
AI Solution

빠르게 제공되는
AI 피드백



지나친 AI 의존에
대한 우려

생성형 AI 사용자 1000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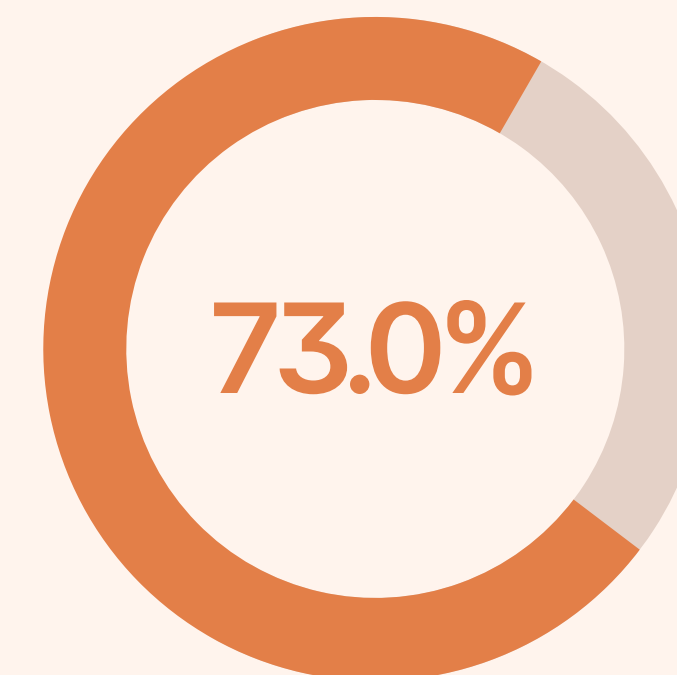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25)

UX Risk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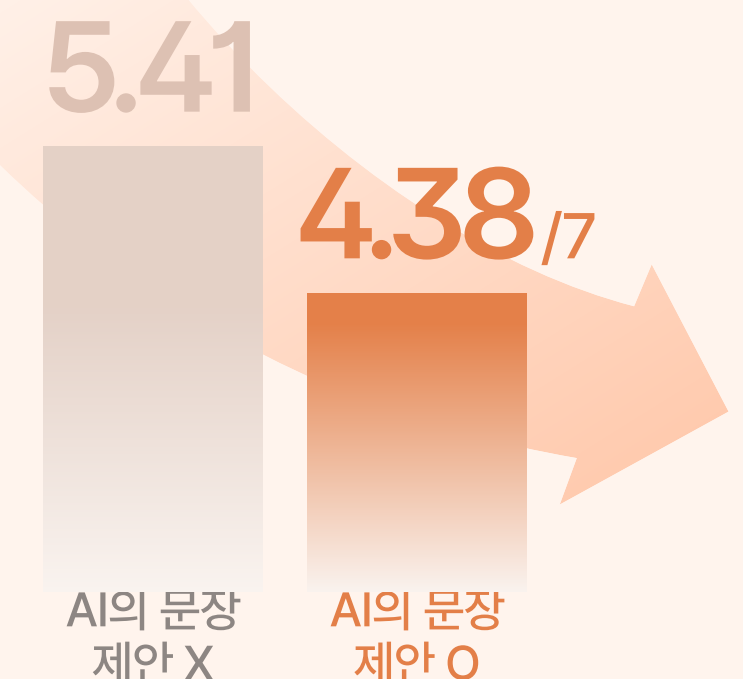
생성형 AI 사용자 1000명 중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25)

내 것이라는
감각의 상실

결과물의 심리적 소유감



Zhang et al.,
Who Owns the Text?, 2026

꾸준히 일기를 써온 8명을 대상으로 기술프로브를 이용한 3일간의 초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I가 일기에 해석을 덧붙일 때 사람들이 **언제 도움을 느끼고 언제 불편해하는지**를 살펴보고, **디자인 고려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 사후 심층인터뷰 총 770분 인터뷰 내용 기반의 주제 분석

"AI의 제안과 내 글을 나란히 두고
계속 **비교하며** 생각해봤어요."

"AI가 짚어준 관점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INSIGHT 1

생각의 비교 대조를 위한 대안적 관점 제시

참여자들은 AI의 해석을 자신의
원래 생각과 비교하며 새로운 관점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내 글과 AI의 글이
구분되면 좋겠어요"

"AI가 내 원본 글을 완전히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건 싫어요."

INSIGHT 2

원본 일기 보존과 투명한 경계 설정

AI가 일기의 사실 관계나 감정의 결을 바꿀 때
거부감을 느꼈으며, AI의 텍스트와 내 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AI 제안 중 **필요한 것만 골라 붙여넣으니**
온전히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성찰을 위해서는
글을 **직접 쓰는 게 중요해요."**

INSIGHT 3

사용자 주도의 능동적 글쓰기와 해석 유도

참여자들은 AI의 제안을 완성된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 유용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편집할 때 소유감을 느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뻘한 방향으로**
AI가 해석하면 **와닿지 않아요."**

"AI가 **내 성향과 기본 정보**를
더 **잘 알고 반영해 주면** 좋겠어요."

INSIGHT 4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맥락 연결

사용자 고유의 성향·가치관이나
과거의 기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해석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AI는 단서를 주고, 내가 의미를 만드는 일기장 Augmentiary를 소개합니다

VALUE 1

하나의 답을 소비하는 대신
여러 관점을 탐색하는 경험

VALU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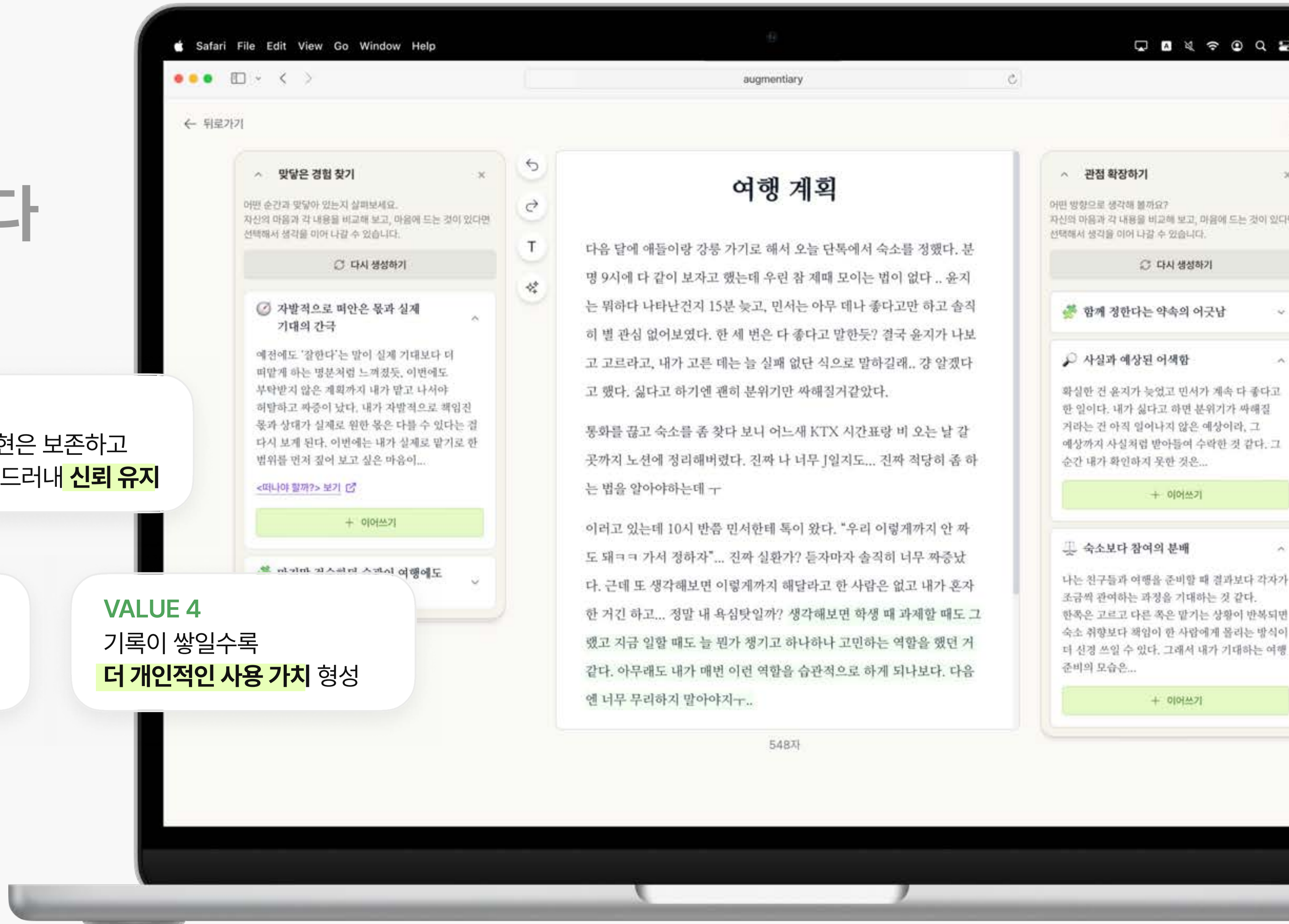
사용자의 표현은 보존하고
AI의 기여는 드러내 신뢰 유지

VALUE 3

AI 제안을 직접 쓰고 고치며
결과물에 대한 소유감과 애착 형성

VALUE 4

기록이 쌓일수록
더 개인적인 사용 가치 형성



제작 및 배포에 활용한 도구



먼저 쓰고, 필요한 부분에서 호출하는 AI 해석

Augmentiary는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일기를 자동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일정 분량 이상** 글을 쓴 뒤,
더 생각해보고 싶은 **문장을 직접 선택할 때만**
AI 해석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무엇을 더
생각해볼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행 계획

다음 달에 애들이랑 강릉 가기로 해서 오늘 단독에서 숙소를 정했다. 분
명 9시에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우린 참 제때 모이는 법이 없다.. 윤지
는 뭐하다 나타난건지 15분 늦고, 민서는 아무 데나 좋다고만 하고 솔직
히 별 관심 없어보였다. 한 세 번은 다 좋다고 말한듯? 결국 윤지가 나보
고 고르라고, 내가 고른 데는 늘 실패 없단 식으로 말하길래.. 강 알겠다
고 했다. 싫다고 하기에 괜히 보이기만 짜해지기가아다

통화를 끊고 숙소를
곳까지 노선에 정리해버렸다. 진짜 나 너무 J일지도... 진짜 적당히 좀 하
는 법

이러
도 돼
다. 근
한 거

이러고 있는데 10시 반쯤 민서한테 특이 왔다. “우리 이렇게까지 안 짜
도 돼ㅋㅋ 가서 정하자”... 진짜 실환가? 듣자마자 솔직히 너무 짜증났
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사람은 없고 내가 혼자
한 거긴 하고... 정말 내 욕심탓일까?

다음에 어디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윤지가 다른 숙소 링크를 보
내길래 바로 후기부터 봤다. 보니까 최근 리뷰에 방음이 안 된다는 말이
세 개나 있어서 바로 캡처해서 보냈다. 하.. ㅊㅊ 이거보단 잘 할 수 있잖

✧ 맞닿은 경험 찾기 ✧ 관점 확장하기

선택한 문장, 과거 기록, 사용자 프로필 기반 AI 해석

‘관점 확장하기’는 여러 의미형성 관점에서
사용자의 정보와 연결된 해석을 제안합니다.

‘연결된 경험 찾기’는 과거 일기 및 경험과
연결지은 해석을 제안합니다.

해석은 최대 3개까지 생성되며,
여러 제안을 한번에 보여주어 비교를 돕습니다.

이전 기록
확인하기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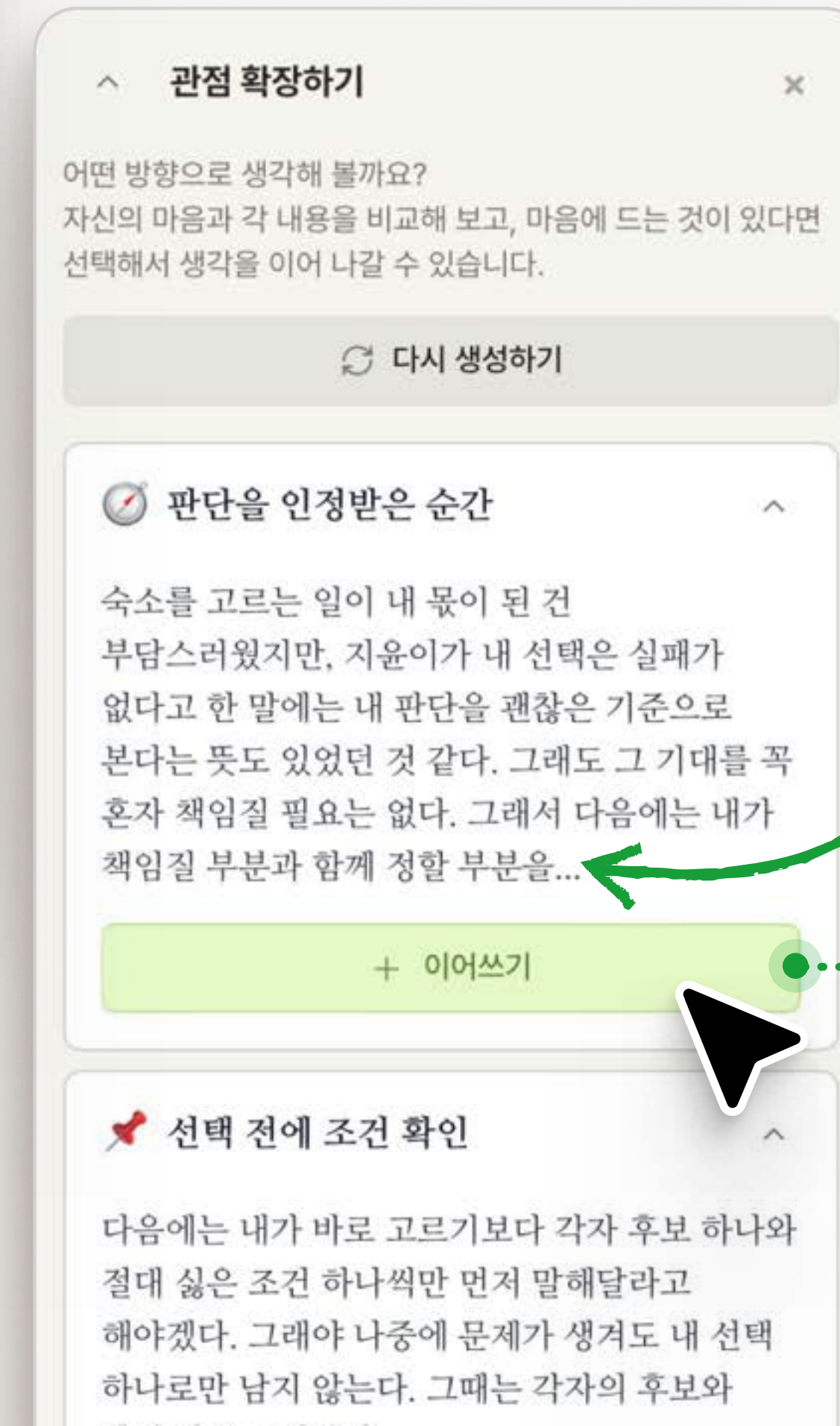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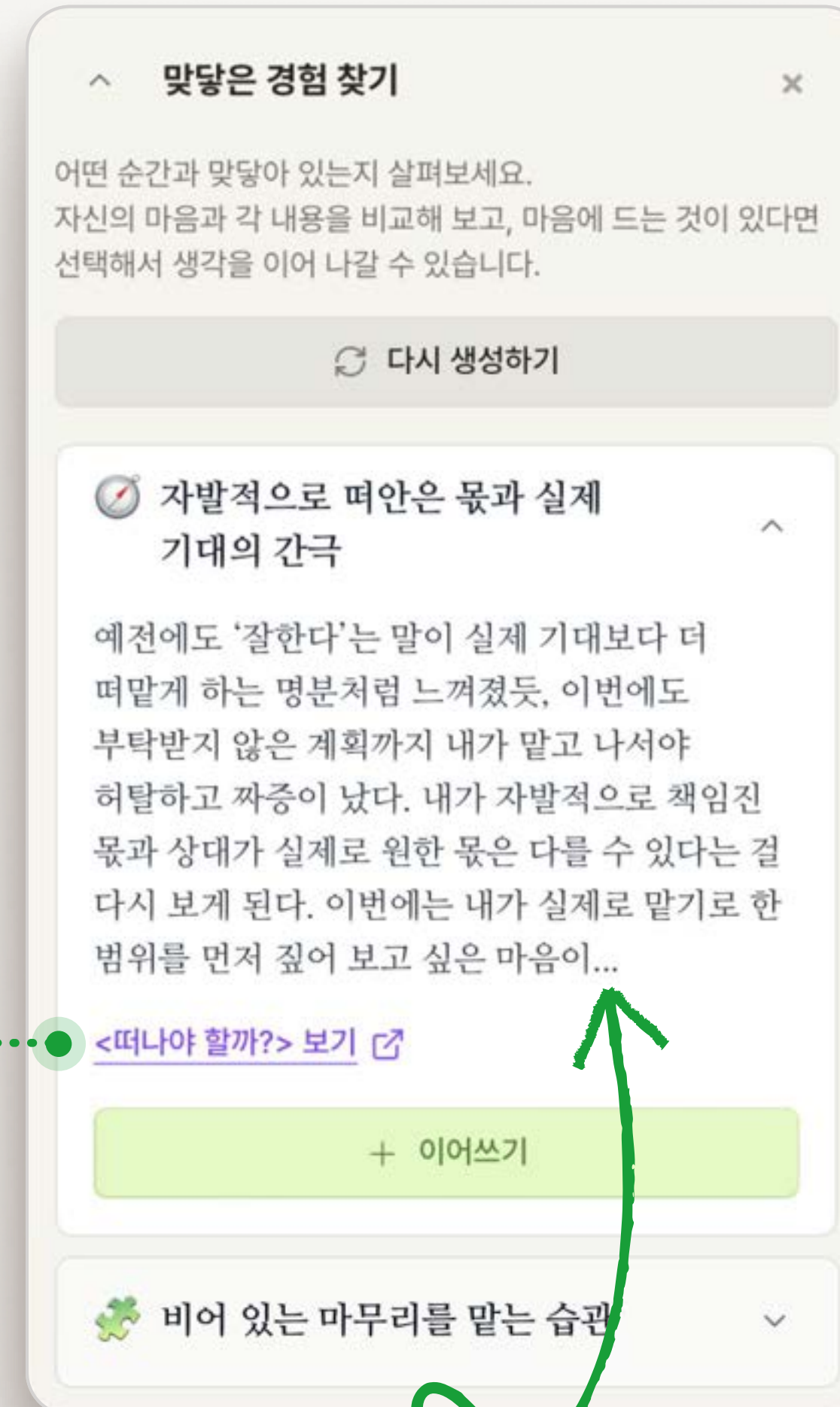
연관된 생각·통찰이
드러난 이전 일기 찾기

02

과거 경험을 연결한
해석 생성

03

이어 쓸 수 있도록
열어두기



01 적절한 의미형성 관점
3가지 선택

02 관점별로
다른 해석 생성

03 이어 쓸 수 있도록
열어두기

본문에 추가해서
이어가기

내 글과 구분되고, 직접 고쳐 쓸 수 있는 AI 제안

사용자가 선택한 AI 해석은 원문을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한 문장 뒤에 삽입됩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말줄임표로 마무리되는
미완성된 형태로 제공되어 이어서 작성하고
수정할 여지를 사용자에게 남깁니다.

또한 AI 텍스트는 하이라이트로 구분되며,
사용자가 수정할수록 하이라이트가 벌어집니다.

다음 달에 애들이랑 강릉 가기로 해서 오늘 단톡에서 숙소를 정했다.

분명 9시에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우리 참 제때 모이는 법이 없다..

는 뭐하다 나타난건지 15분 늦고, 민서는 아무 데나

히 별 관심 없어보였다. 한 세 번은 다 좋다고 말한

고 고르라고, 내가 고른 데는 늘 실패 없단 식으로

고 했다. 싫다고 하기엔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거같

통화를 끊고 숙소를 좀 찾다 보니 어느새 KTX 시

곳까지 노선에 정리해버렸다. 진짜 나 너무 J일지

는 법을 알아야하는데 ㅏ

이려고 있는데 10시 반쯤 민서한테 톡이 왔다. “우

도 돼ㅋㅋ 가서 정하자”... 진짜 실환가? 듣자마자

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한 거긴 하고... 정말 내 욕심탓일까? 조별 과제나

수를 맡고 문제 생기면 대신 마무리하던 습관이

어 있었다. 민서의 한마디가 계획보다 그 익숙한

증났나 보다. 이번에는 그 역할에서...

564자

미완결된 제안

다음 달에 애들이랑 강릉 가기로 해서 오늘 단톡에서 숙소를 정했다. 분

명 9시에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우리 참 제때 모이는 법이 없다.. 윤지

는 뭐하다 나타난건지 15분 늦고, 민서는 아무 데나 좋다고만 하고 솔직

히 별 관심 없어보였다. 한 세 번은 다 좋다고 말한듯? 결국 윤지가 나보

고 고르라고, 내가 고른 데는 늘 실패 없단 식으로 말하길래.. 강 알겠

고 했다. 싫다고 하기엔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거같았다.

통화를 끊고 숙소를 좀 찾다 보니 어느새 KTX 시간표랑 비 오는 날 갈

곳까지 노선에 정리해버렸다. 진짜 나 너무 J일지도... 진짜 적당히 좀 하

는 법을 알아야하는데 ㅏ

이려고 있는데 10시 반쯤 민서한테 톡이 왔다. “우리 이렇게까지 안 짜

도 돼ㅋㅋ 가서 정하자”... 진짜 실환가? 듣자마자 솔직히 너무 짜증났

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사람은 없고 내가 혼자

거긴 하고... 정말 내 욕심탓일까? 생각해보면 학생 때 과제할 때도 그

랬고 지금 일할 때도 늘 뭔가 챙기고 하나하나 고민하는 역할을 했던 거

같다. 아무래도 내가 매번 이런 역할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나보다. 다음

엔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지ㅏ..

548자

수정할수록
열어지는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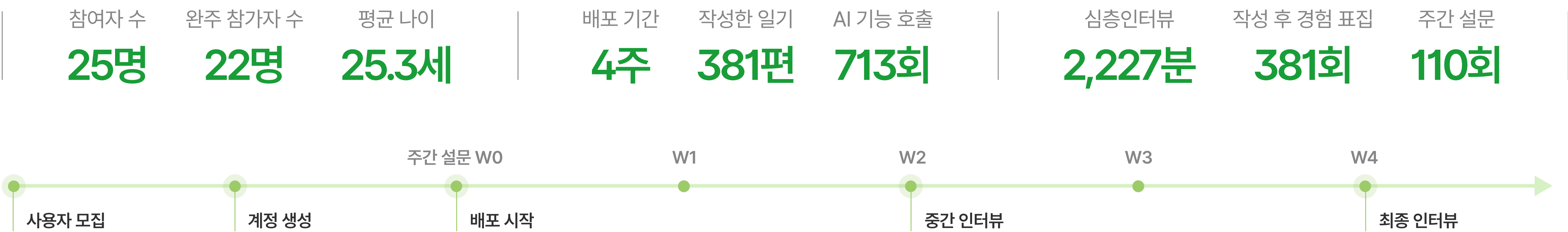
자기성찰 의향이 있는 **25명의 실제 일상에서 4주간 Augmentary를 검증**했습니다.
두차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AI의 해석에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성찰**하는지 물었습니다.

※ 경험 표집과 주간 설문 기반 분석, 중간 및 최종 심층인터뷰 총 2,227분 인터뷰 내용 기반의 주제 분석

Hypothesis

- 01 개인 맥락을 반영한 AI 해석은
일기에서 새로운 통찰과 의미 발견을 도울 것이다.
- 02 AI의 제안을 선택하고 고쳐 쓸 수 있게 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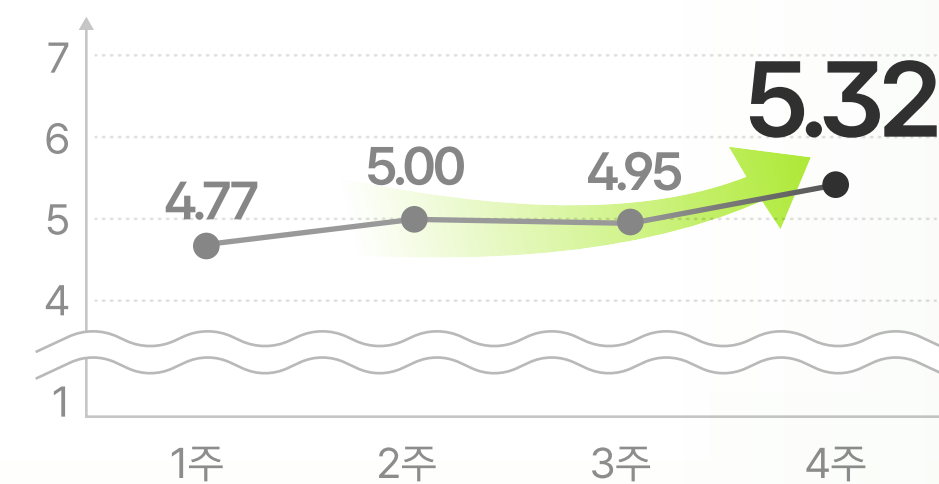
Deployment Research



개인의 맥락이 반영된 AI 해석을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통찰과 목적감을 얻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새로운 관점을 고려했다

주간 설문 데이터 (7점 리커트)



"제가 막연하게 적은 생각을 AI가 '이런 의미일까?' 하고 구체적인 말로 꺼내주는 느낌이었어요."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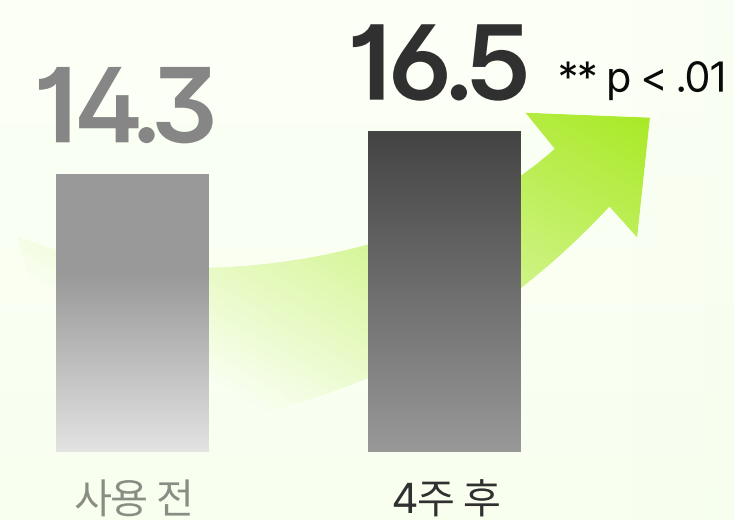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주긴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느낌이었어요." P24

INSIGHT 1

제안을 강요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AI 제안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4주 간 삶의 목적감 상승

주간 설문 데이터 (MEMS-Purpose 척도)



"서로 떨어진 섬처럼 보이던 경험들이 연결되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P4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한 번 썼더니, 이후에는 무슨 글을 써도 그 경험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제안했어요."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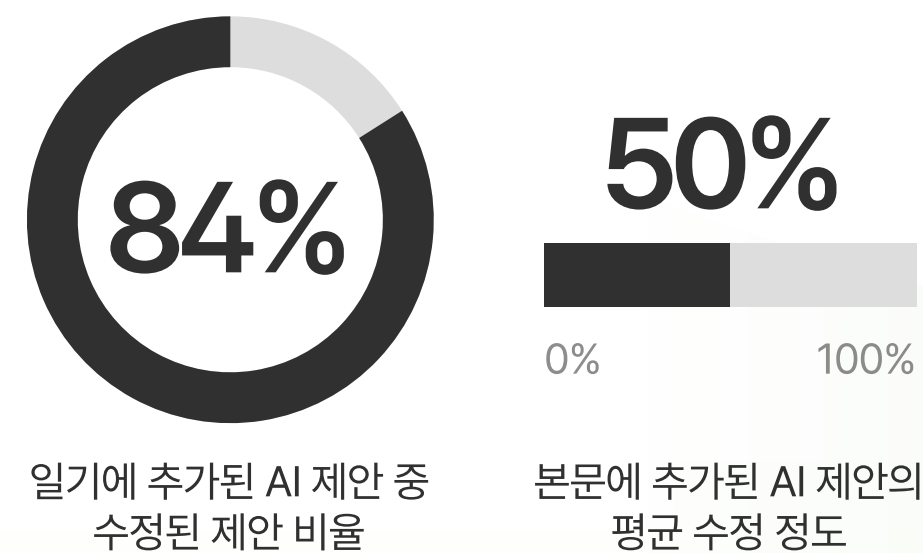
INSIGHT 2

유용한 발견을 돕기 위해 '의미적 관련성'을 넘어
사용자가 느끼는 '**개인적 중요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고치고, 이어 쓰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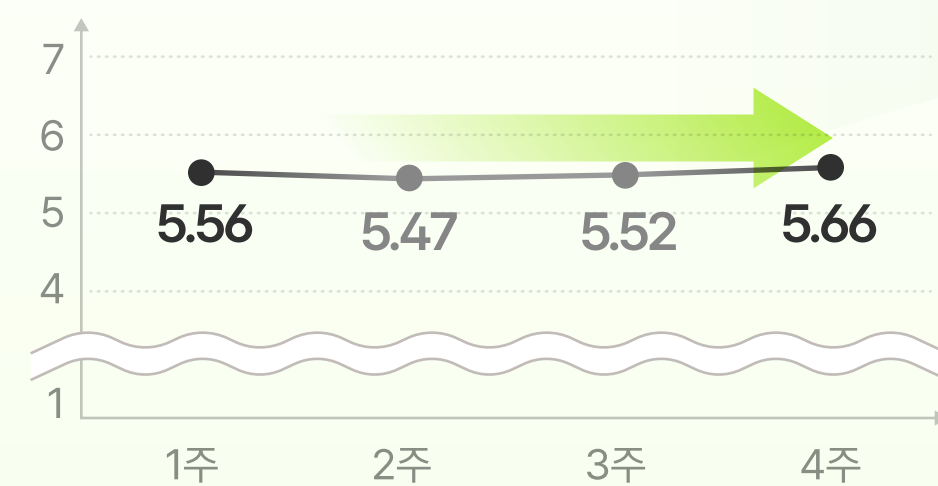
사용자의 언어로 다시 쓰인 AI 해석

사용 로그 데이터



완성한 오늘의 일기가 완전히 내 것으로 느껴진다

작성 직후 경험 표집 데이터 (7점 리커트)



"제안 세 가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어요." P9

"처음엔 제 생각이랑 안 맞더라도, 적용한 뒤에는 제 식으로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것이라고 느꼈어요." P1

"AI가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끝을 저에게 남겨둬서 제가 직접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P10

"AI 제안의 배경색을 지우는 게 목표가 돼서, 색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더 썼어요." P8

INSIGHT 3

맞춤형 응답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각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남기기 위해,
AI 제안을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PROJECT 2

FramePilot

디자인 의사결정 보조를 위한 AI 기반 UI 디자인 피드백

TEAM PROJECT

전체 리서치 리드,
디자인 실무자 13명 대상 심층인터뷰,
디자인 고려사항 도출 및 컨셉 개발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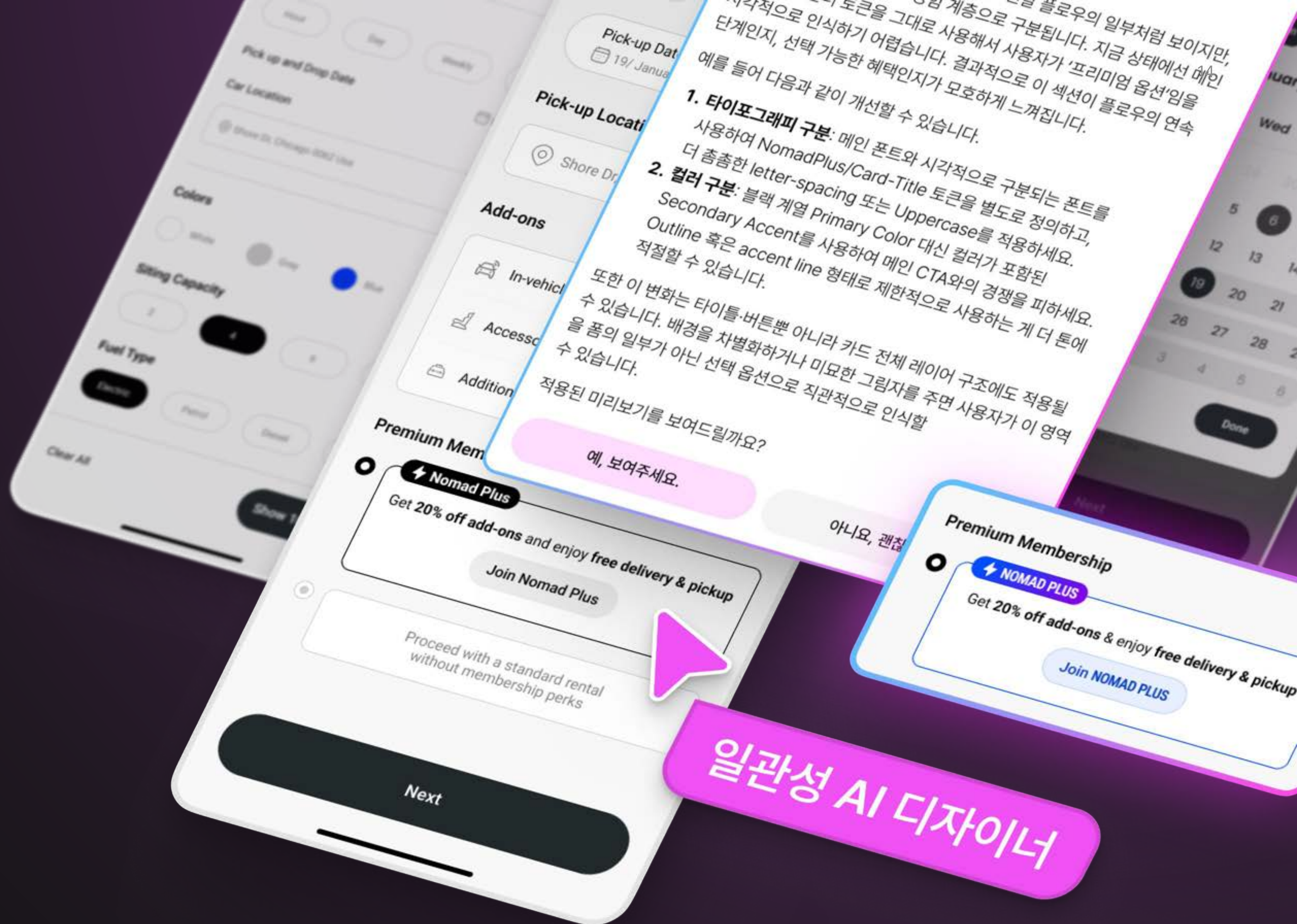
2025.01 – 2025.12

CLIENT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OUTCOME

AI 기반 디자인 피드백 설계 요구사항 도출



AI로 생성하는 디자인 피드백이 어떻게 하면 실무에서 유용할 수 있을지 탐색한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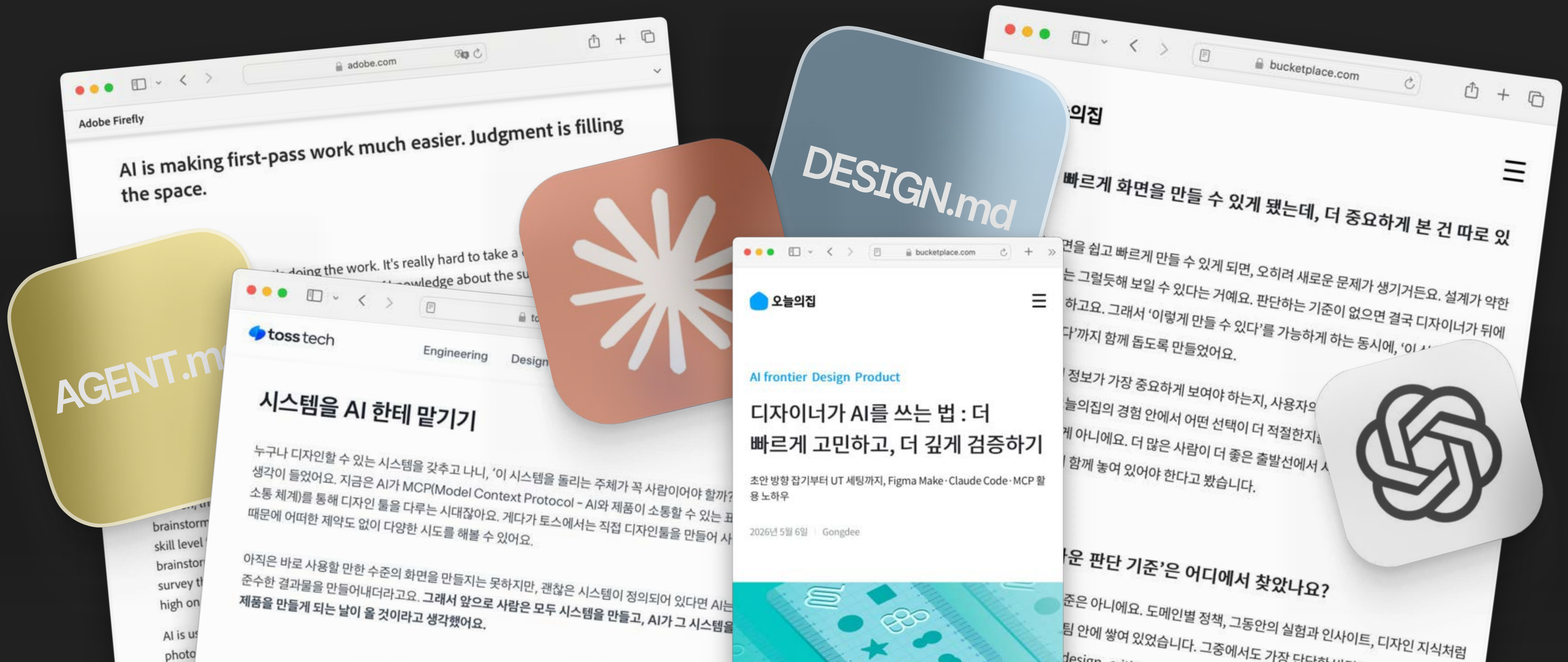
현업 UI 디자이너 13명 대상의 리서치를 통해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상호작용 컨셉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활용된 UI 디자인 시안: <https://www.figma.com/community/file/1441037535722616333/car-rental-app-ui-ux-design>

AI가 디자인 시안을 더 쉽게 만들어줄수록, 디자이너에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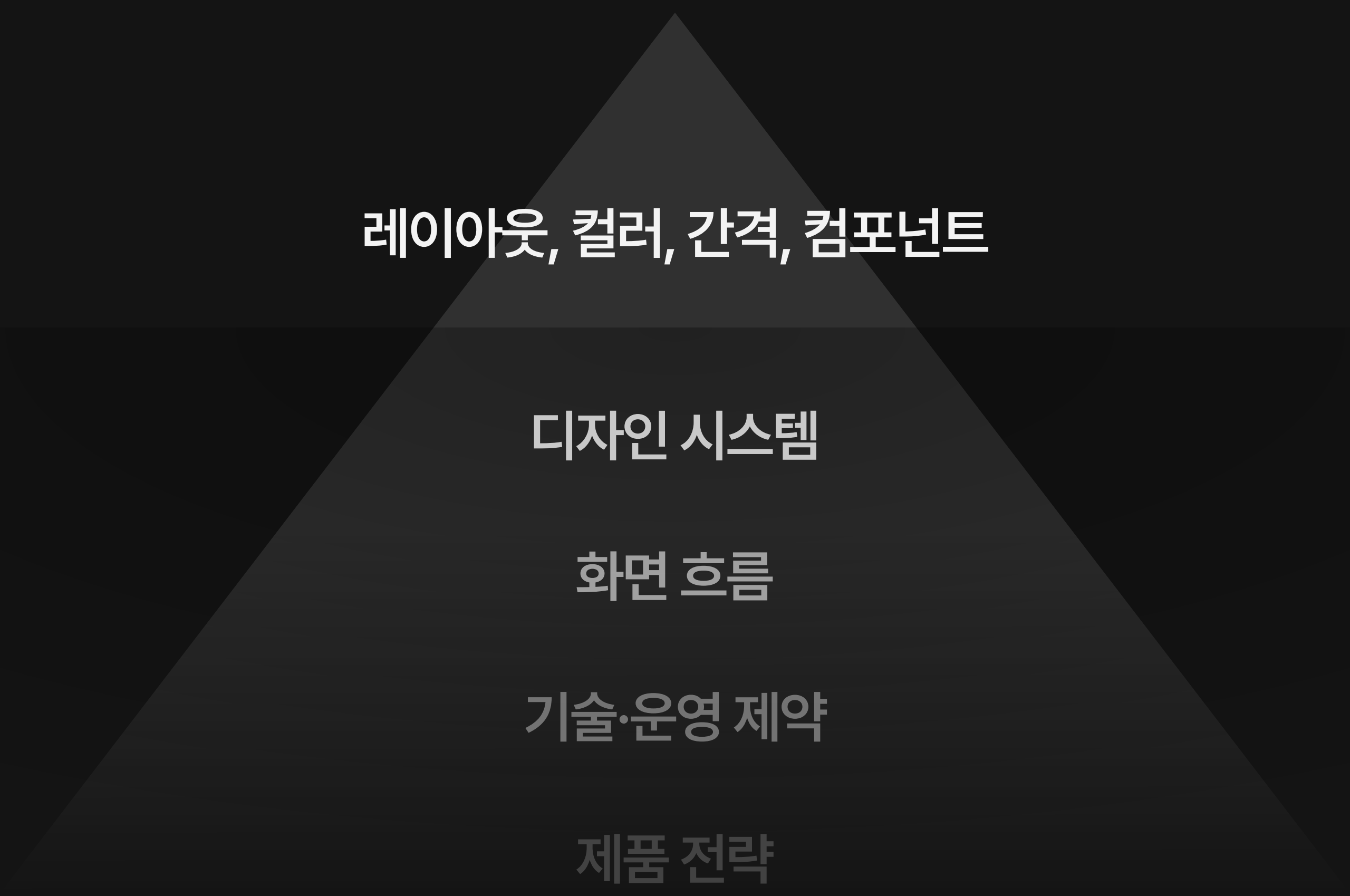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 제품의 목표, 화면 흐름, 디자인 시스템, 개발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고 과정입니다.

AI 덕분에 생성과 검토가 빨라져도,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디자이너의 몫으로 남습니다.



AI가 디자이너들의 사고 과정을 보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면 너머의 맥락과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실무에서, AI가 어떻게 디자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레이아웃, 컬러, 간격, 컴포넌트

디자인 시스템

화면 흐름

기술·운영 제약

제품 전략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는 UI 디자이너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자인 의사결정 및 현재 AI 도구 활용 경험과 실무에서 어떤 피드백을 신뢰하는지, 실무 흐름에 적합한 AI의 개입 방식을 물었습니다.

In-depth Interview

참여자 수

13명

실무 경력

1년 - 10년

심층인터뷰

1,262분

디자인 사고와
의사결정 경험



UI 디자인 작업 내
AI 도구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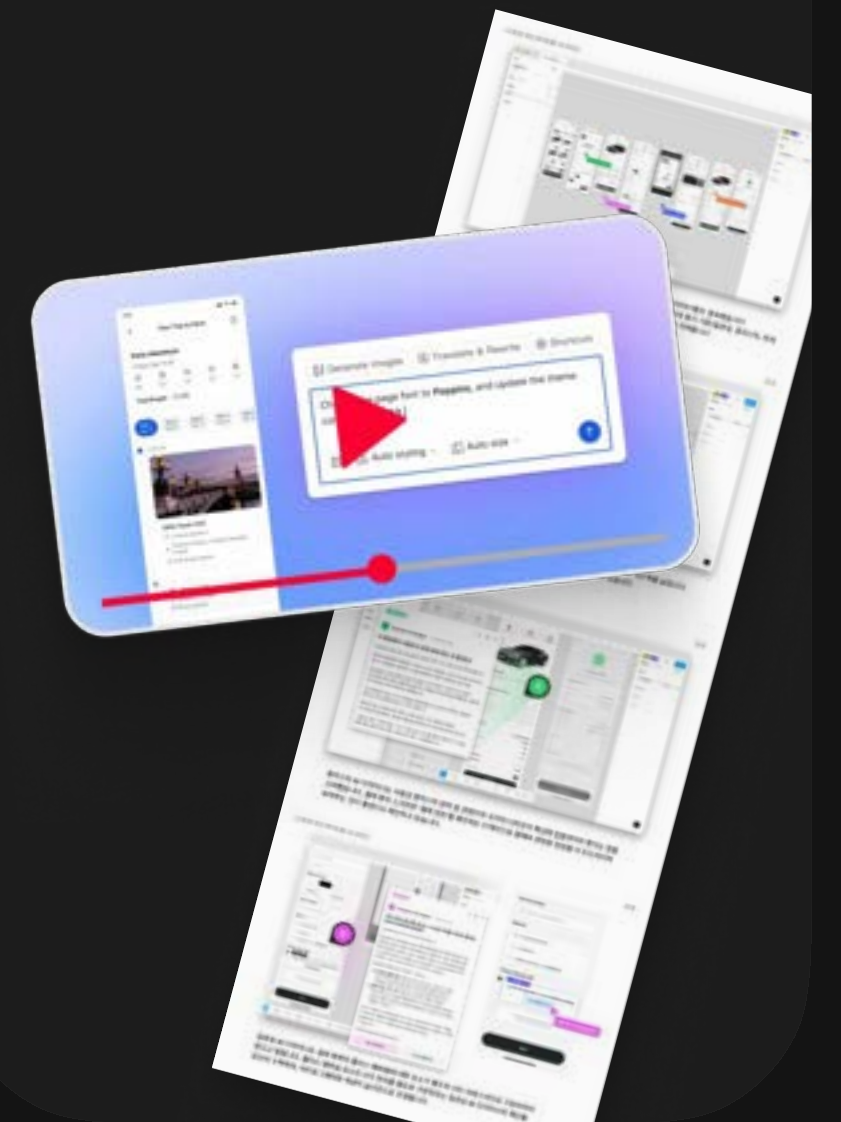
실무에서의
디자인 피드백 경험

관점과
기준

유용한
피드백의
조건

특성

UI 생성 툴 데모와
미래 협업 시나리오



AI 기반 디자인 피드백은 여러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작업 방식에 적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해도 기존 DB 구조에 맞지 않으면, 결국 디자인을 바꿔야 해요." P13

"일정과 개발 인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스펙을 줄일 방법을 고민합니다." P11

"브라우저 호환성 같은 변수를 줄이려면, 디자이너도 개발 환경을 이해해야 해요." P10

INSIGHT 1

디자인 의사결정은
맥락과 제약을 조율하는 종합적 판단

"왜 디자인이 불안정해 보이는지와 어떻게 개선하면 나아질지를 함께 알려줄 때 도움이 돼요." P7

"이미 리서치와 아이디어이션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모두 무시한 피드백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P8

"원래 의도를 살리면서 더 나은 시안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피드백이 가장 좋았어요." P5

INSIGHT 2

좋은 피드백은 평가를 넘어
다음 결정을 돕는 구조

"원칙 정합성 검증에는 AI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디자인하다 보면 그런 걸 놓치니까요." P10

"디자인하면서 놓치기 쉬운 문제를 AI가 먼저 짚어주면, 작업 초반에 1차 점검을 받는 느낌이라 도움이 돼요." P3

"전체 사용자 여정과 여러 화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일은 아직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P9

INSIGH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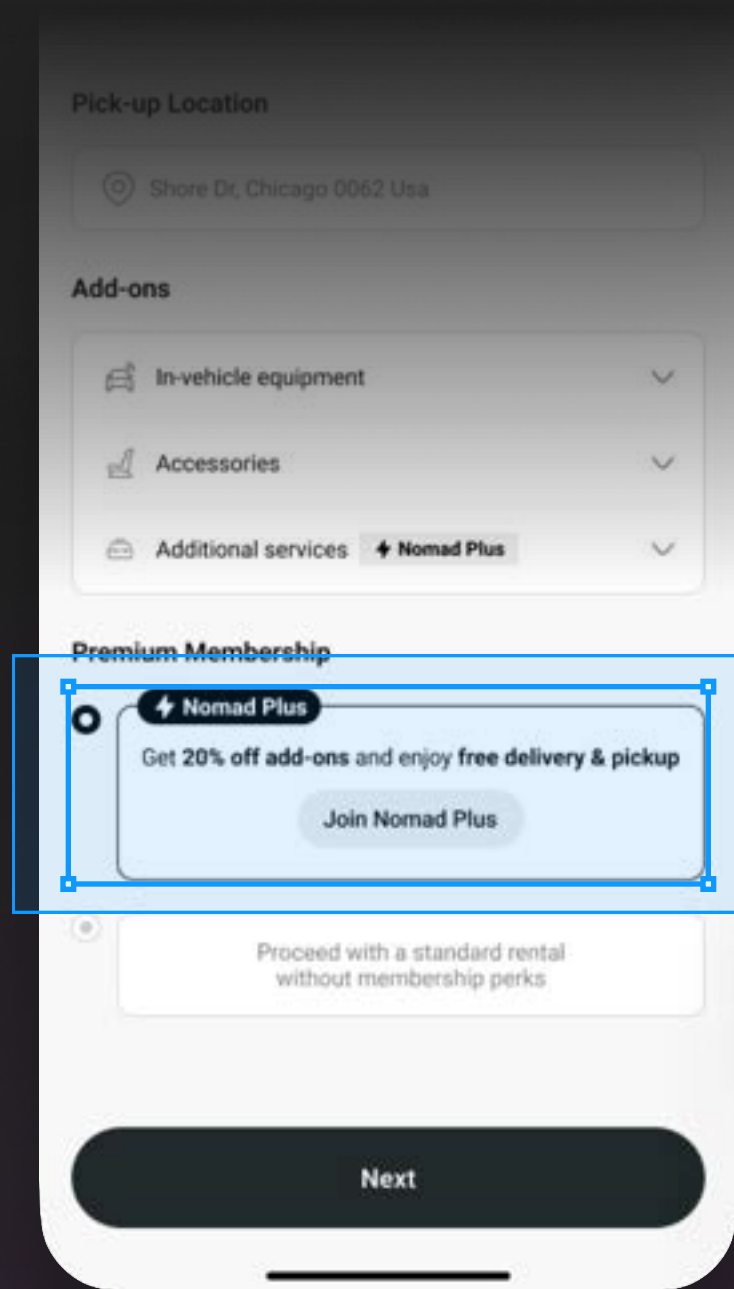
AI는 빠른 1차 검토에 유용,
맥락 반영과 실무 적용에는 한계

AI 디자인 피드백은 작업 맥락과 디자인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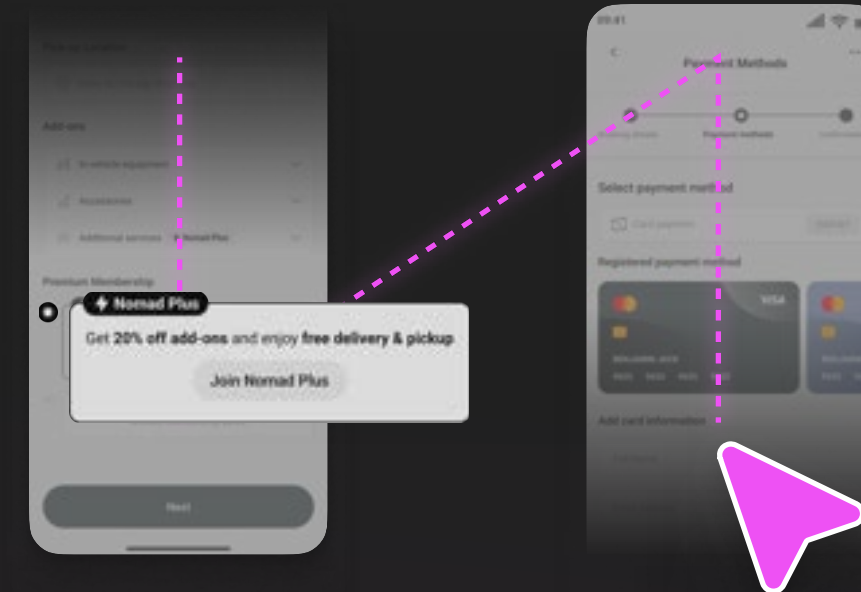
실무에 유용한 피드백은 일반적인 UI 원칙을 적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비스 목표와 타겟 사용자, 화면 흐름과 디자인 시스템을 살피고 정책과 기술적 제약, 디자이너의 의도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함께 고려했을 때, 피드백이 프로젝트의 조건에 맞는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피드백 대상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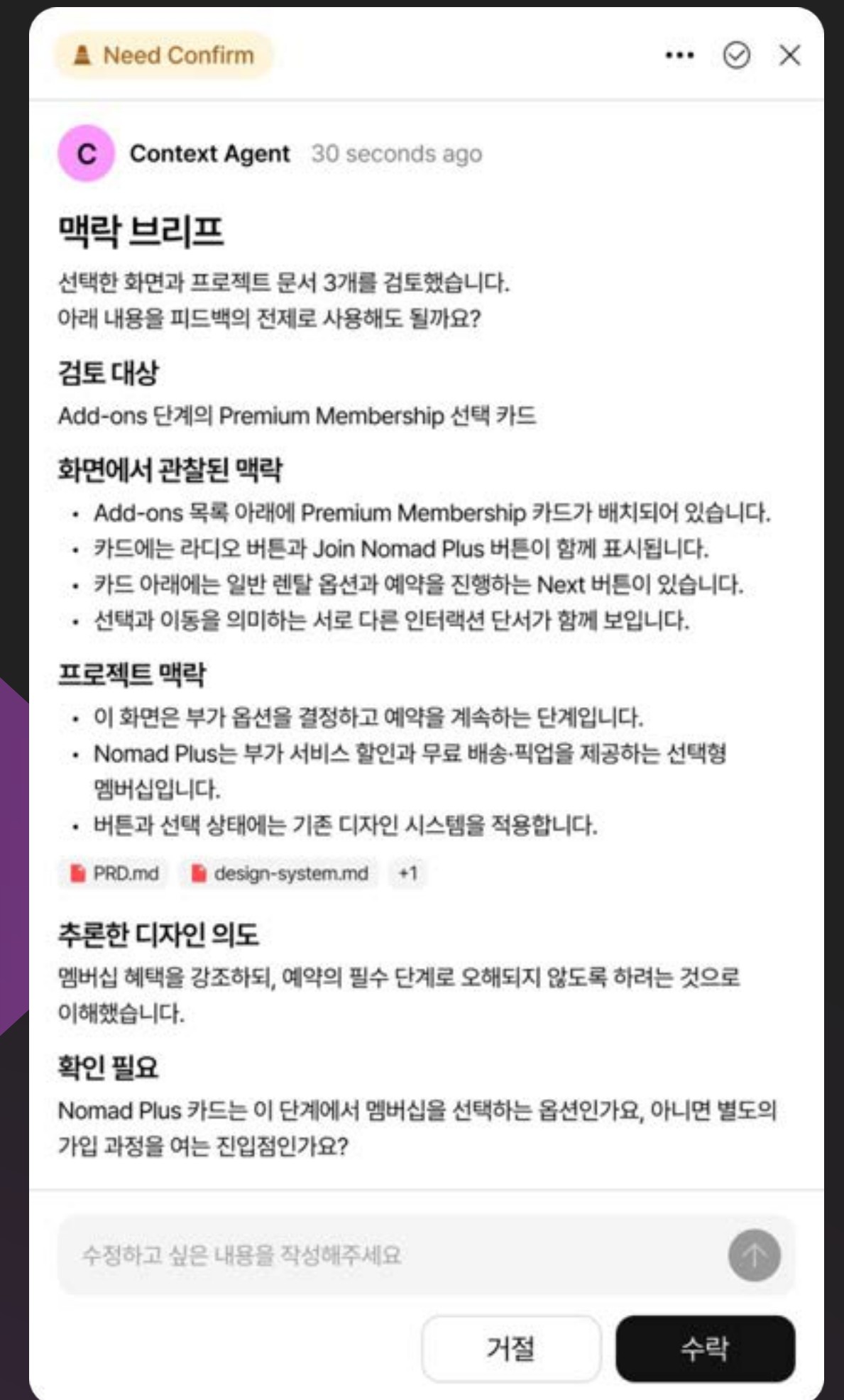


디자인 작업물 분석

PRD.md

design-system.md

프로젝트 맥락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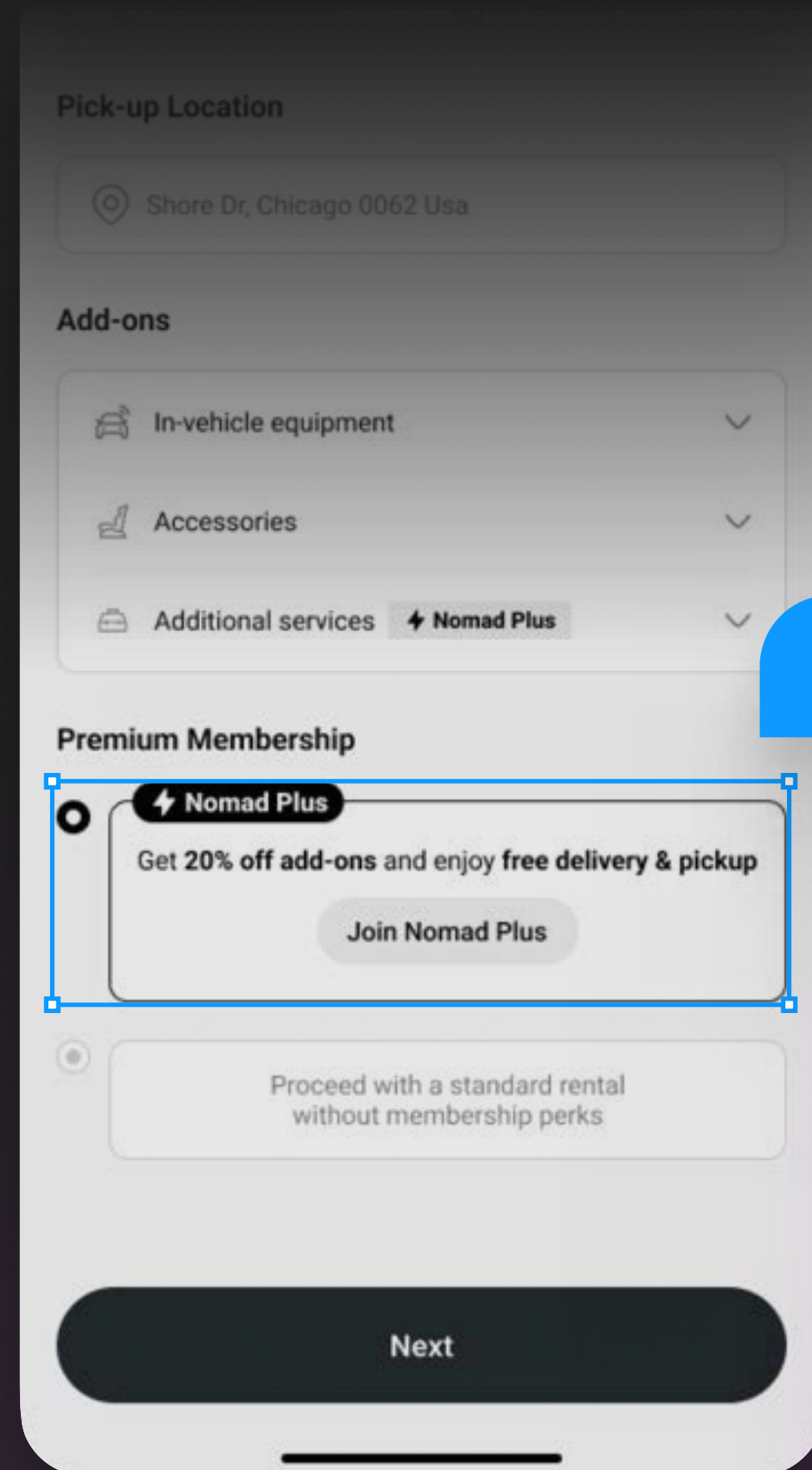


맥락 브리프

AI 디자인 피드백을 대안 중심, 시각 중심, 실무 언어 중심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대상을
분명히 짚고 실제 수정 방향을 떠올릴 수 있는
피드백을 더 유용하게 인식했습니다.

긴 텍스트로 제시하기보다 화면에 코멘트를
연결하고 수정 전후를 비교해 보여주며,
구체적인 대안을 실무 언어로 제시하는 등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에 맞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피드백

@화면분석 으로 선택 구조를 확인하고, @디자인지식검색 · @규칙검사 를 통해 design-system.md의 선택 패턴과 버튼 위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design-system.md specification.doc +1

선택 방식과 행동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주세요.

- 라디오 버튼과 Join Nomad Plus가 동일한 선택을 중복해서 표현합니다.
- Standard Rental과 선택 방식이 달라 옵션 간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 카드 전체를 하나의 선택 영역으로 통일해주세요.
- Next만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Primary CTA로 유지해주세요.

확인 필요

멤버십 선택 후 별도의 약관 확인이 필요한지는 프로젝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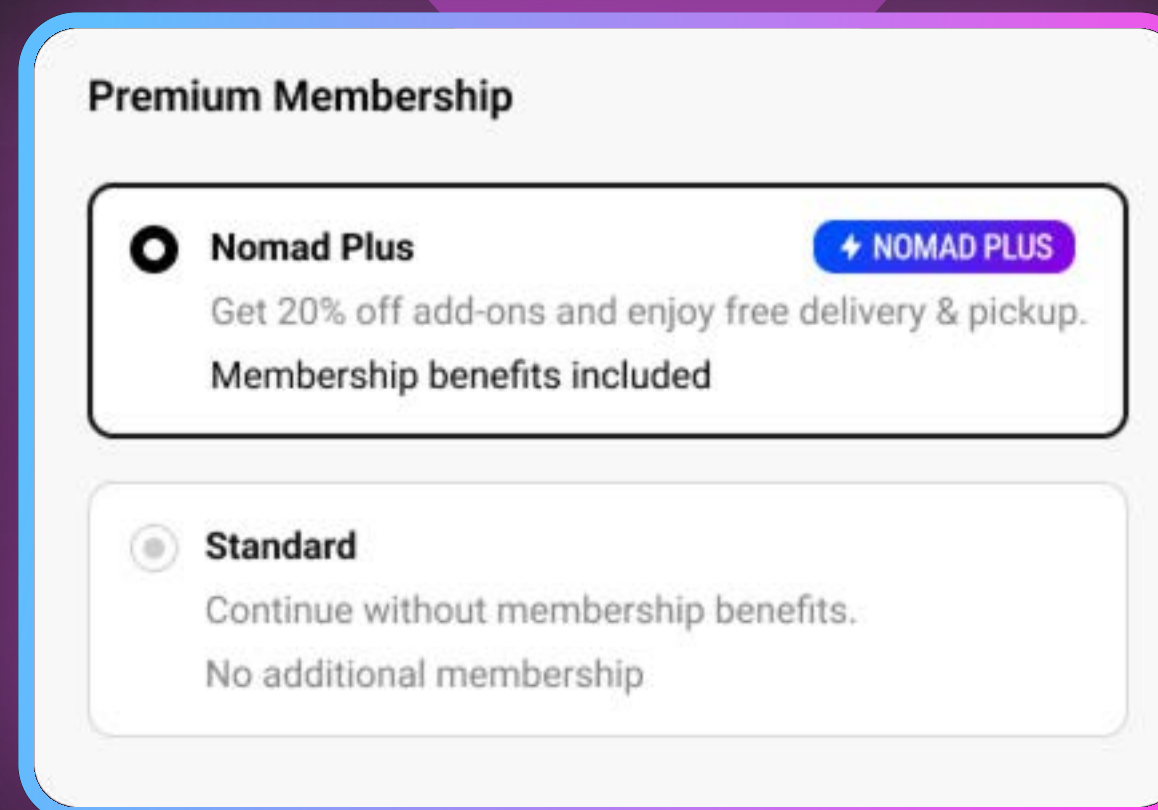
피드백이 적용된 미리보기 시안을 보여드릴까요?

추가 질의 내용을 작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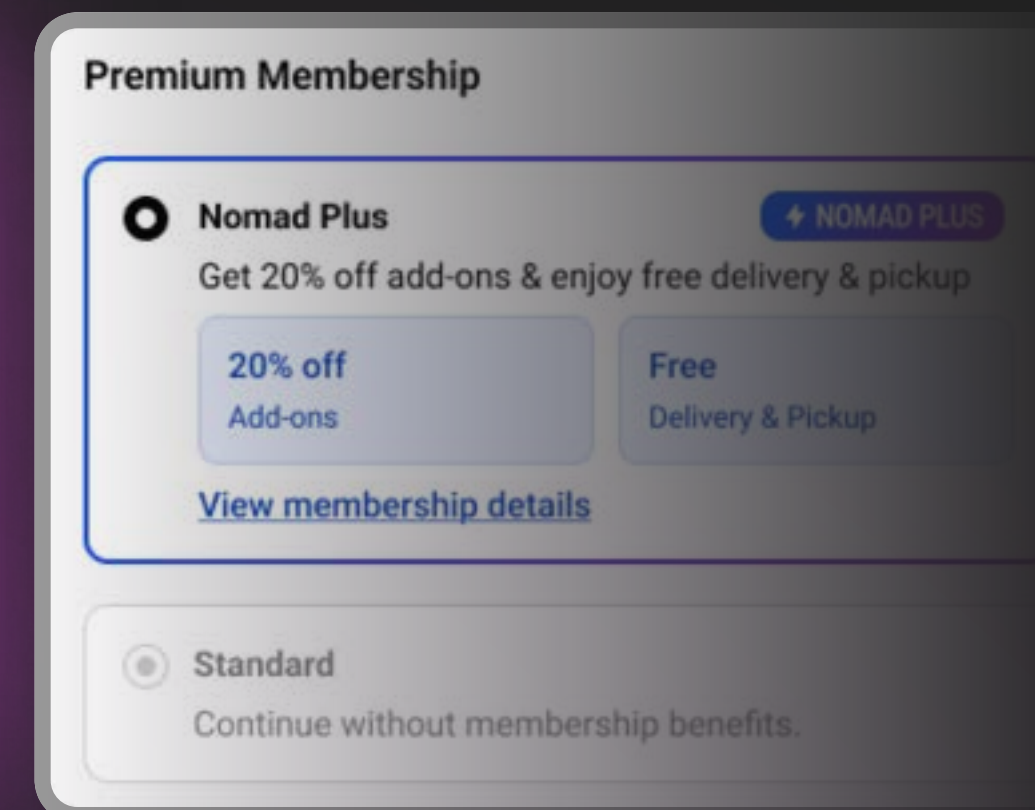
아니오

네, 보여주세요

대안 1



대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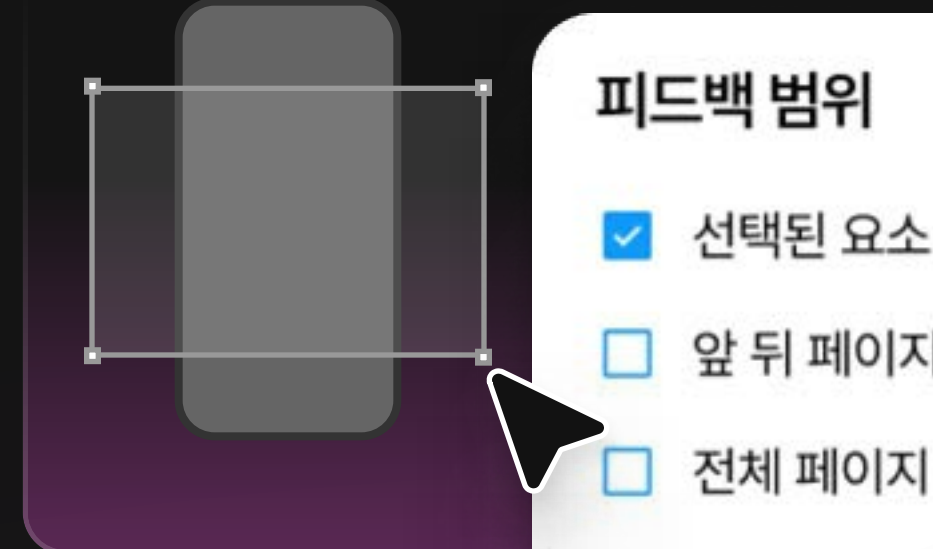


AI 디자인 피드백은 디자이너가 주도하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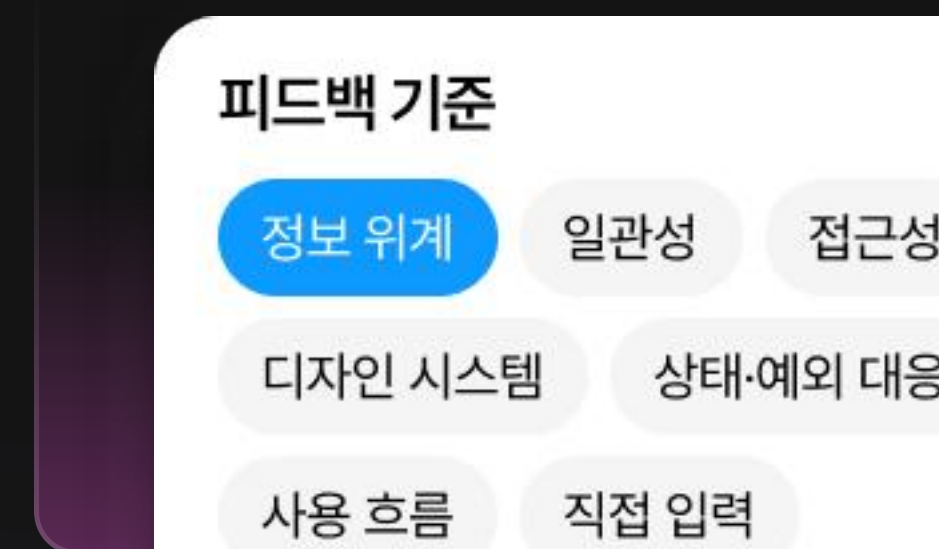
디자이너들은 AI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필요한 피드백의 초점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디자인 의도를 설명하며, AI의 판단 근거에
질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원했습니다.

AI 피드백은 자동으로 확정되고 전달되는 평가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양방향 보조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드백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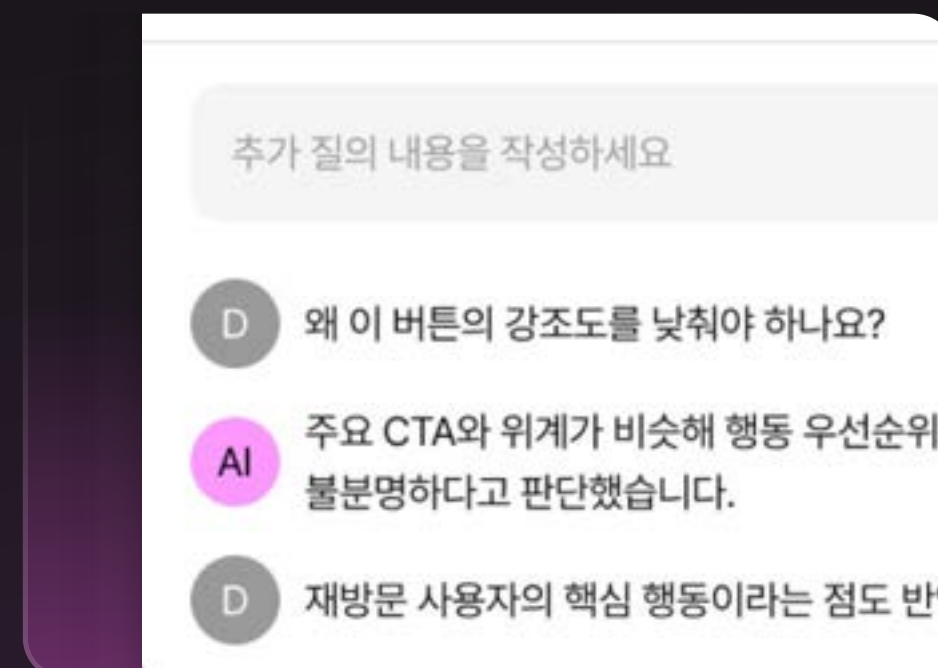
피드백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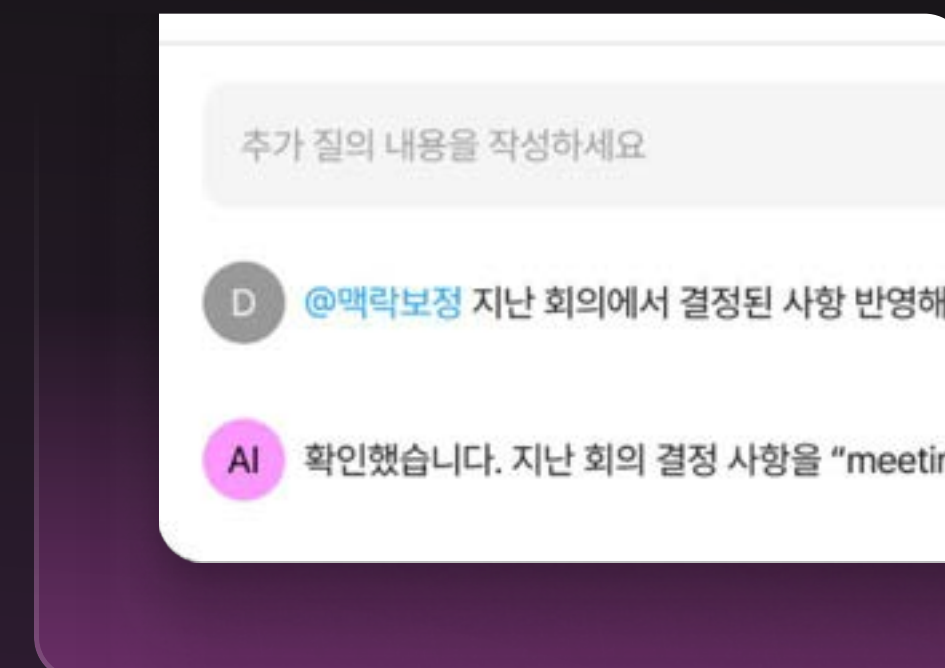
의도 및 요청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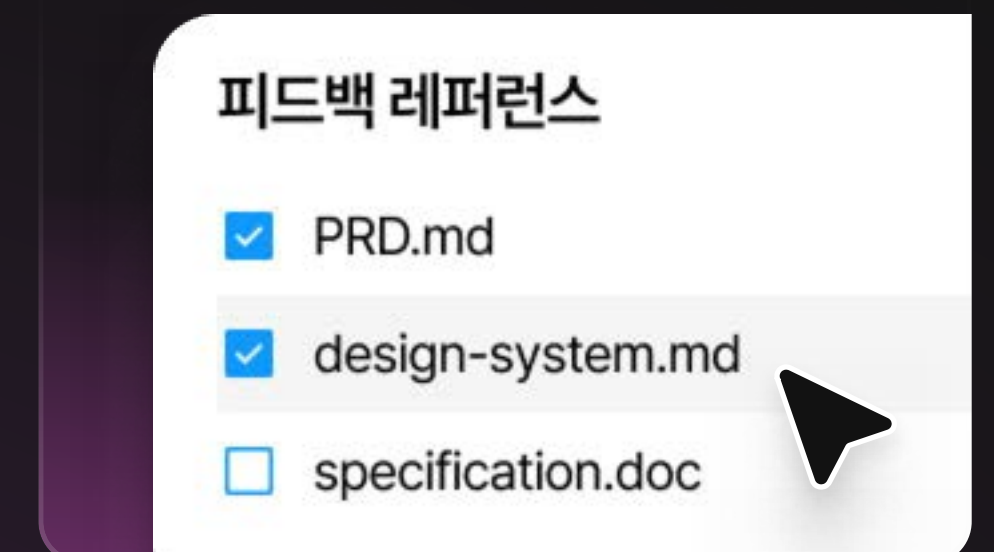
후속 질문



맥락 보정



참고 자료 관리



AI 디자인 피드백은 판단 근거를 드러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AI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들은 AI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디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때 그 피드백을
검토할 만한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업 맥락 요약

F Feedback Agent 30 seconds ago

최종 피드백

맥락 요약

Add-ons 단계에서 사용자는 Nomad Plus Membership 또는 Standard Rental을 선택한 뒤 Next 버튼으로 예약을 계속합니다.

맥락 브리프를 통해 Nomad Plus 카드가 별도 가입 과정의 진입점이 아니라, 현재 화면에서 멤버십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임을 확인했습니다.

PRD.md context-brief.md +1

피드백

@화면분석 으로 선택 구조를 확인하고, @디자인지식검색 · @규칙검사 를 통해 선택 패턴과 버튼 위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design-system.md specification.doc +1

선택과 이동의 역할을 구분해주세요.

- 라디오 버튼과 Join Nomad Plus가 동일한 선택을 중복해서 표현합니다.
- Standard Rental과 선택 방식이 달라 옵션 간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 카드 전체를 하나의 선택 영역으로 통일해주세요.
- Next만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Primary CTA로 유지해주세요.

확인 필요

멤버십 선택 후 별도의 약관 확인이 필요한지는 프로젝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드백이 적용된 미리보기 시안을 보여드릴까요?

추가 질의 내용을 작성하세요



아니오

네, 보여주세요

피드백 기준

피드백 내용

확인 필요 사항

PROJECT 3

BBBK Redesign

통역 봉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흐름 및 모바일 UI/UX 개선

TEAM PROJECT

벤치마킹 및 UX 디자인 요구사항 도출,
4명의 디자이너 중 iOS 봉사자앱 UI 디자인 담당

PERIOD

2022.09 - 2023.01

CL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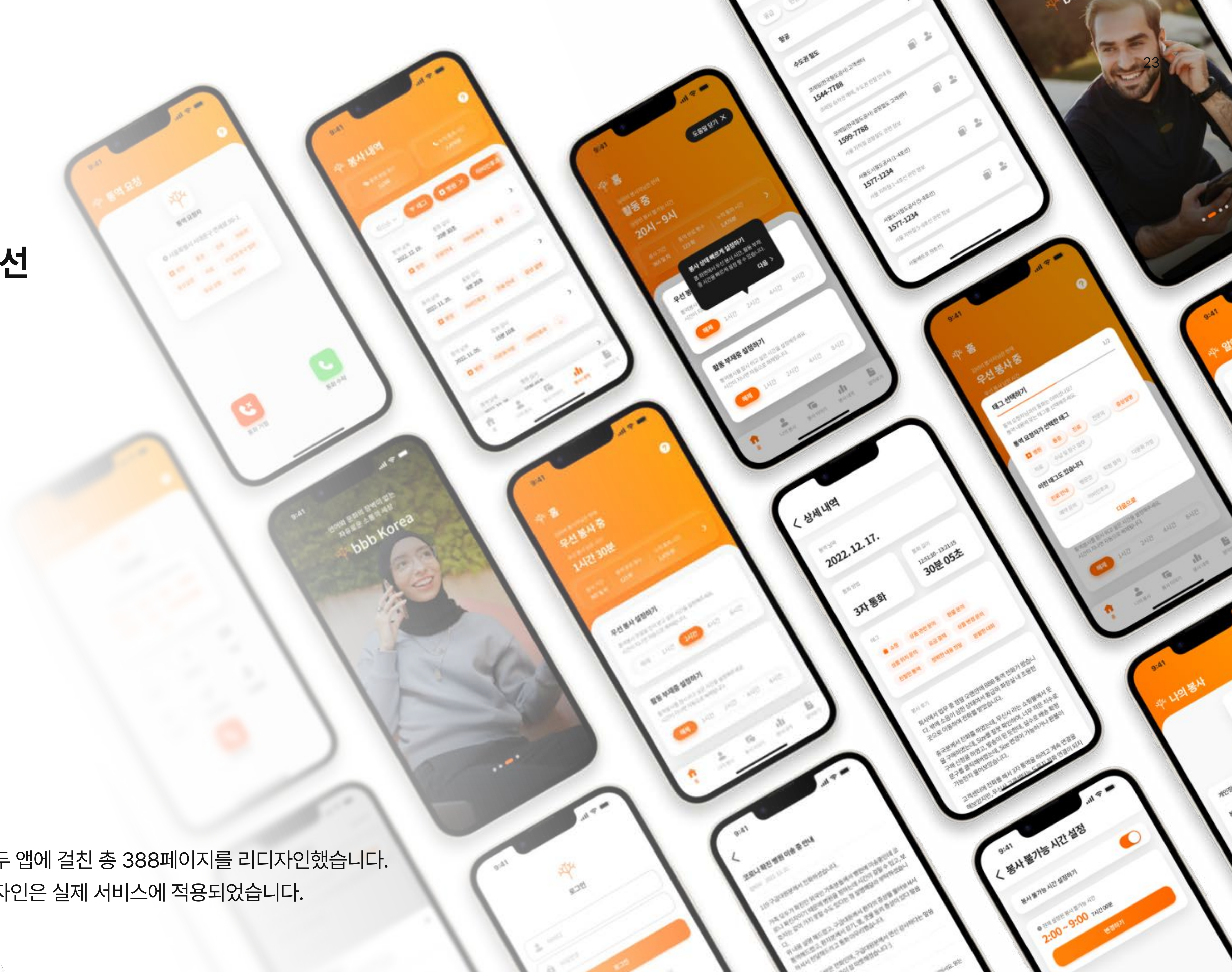
BBB Korea

OUTCOME

최종 UI 디자인 실제 서비스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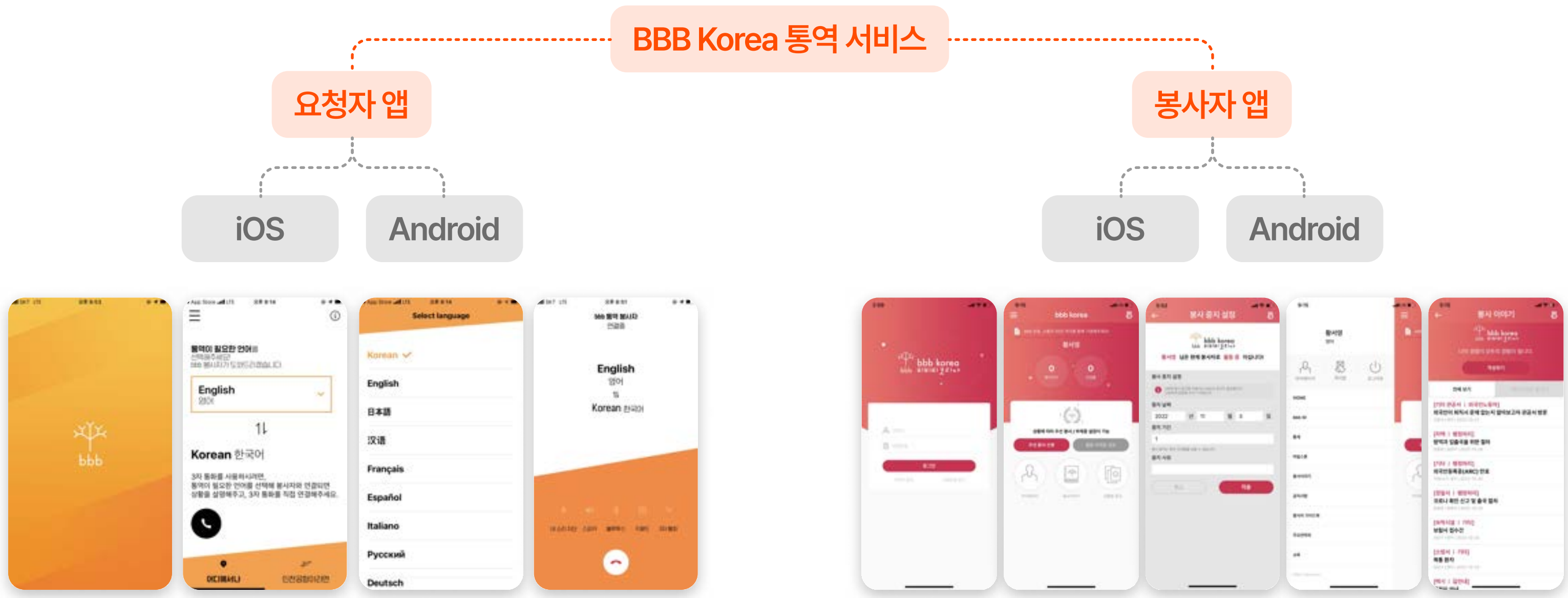


UX 분석 및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한 요청자/봉사자 두 앱에 걸친 총 388페이지를 리디자인했습니다.
Zeplin으로 개발단에 핸드오프 하였으며 최종 UI 디자인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능 도입 전, 서비스 전반의 UX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BBB 코리아는 통역이 필요한 이용자와 통역 봉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요청자용 앱과 봉사자용 앱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자와 봉사자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상황 설명 태그** 기능을 도입하면서, 모바일 **경험 전반의 일관성과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했습니다.



일관된 앱 경험 제공

OS별 봉사자 앱과 요청자 앱 총 4가지 환경에서
일관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용자 경험 개선

사용자가 시간에 민감한 핵심 기능에 더 빠르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태그 기능 도입 준비

상황 설명 태그 기능을 도입을 고려한
UX와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저플로우를 분석해 주요 UX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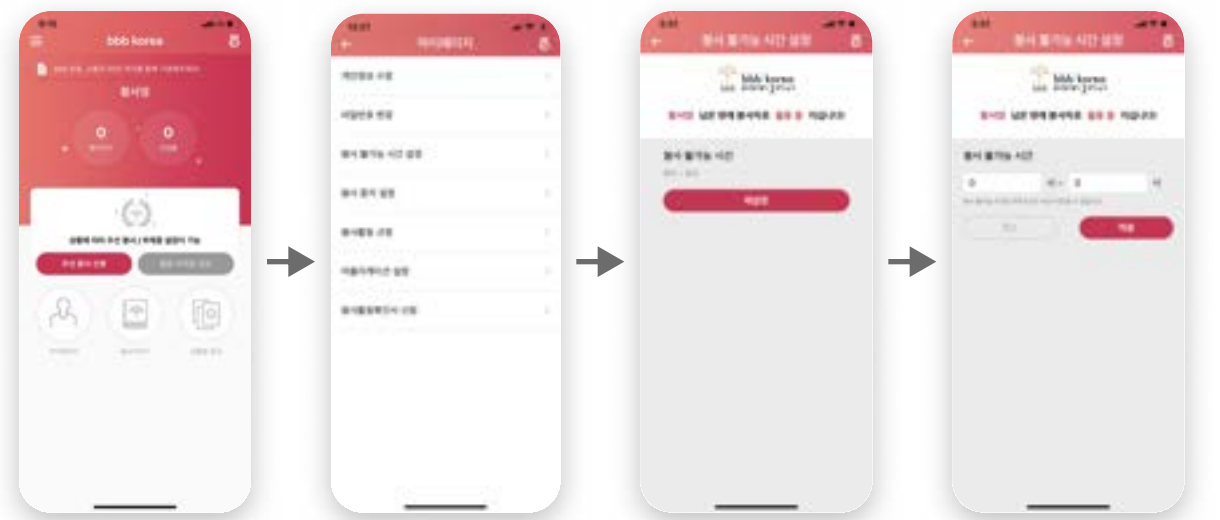
기존 화면과 사용자 플로우를 매핑한 결과, 과도한 탐색 깊이와 분산된 진입점, 불명확한 피드백으로 인해 핵심 과업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단절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Flow Map As-Is



PROBLEM 1 과도한 탐색 깊이

핵심 기능에 접근하는 단계가 너무 길었습니다. 봉사자 앱은 봉사 가능 시간을 설정하는 데 최대 3~4회의 화면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PROBLEM 2 분산된 진입점

언어 설정과 봉사 상태 설정 등 주요 기능의 진입점이 앱의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어, 기능을 찾고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PROBLEM 3 부족한 피드백

상호작용 결과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전체 흐름 중 현재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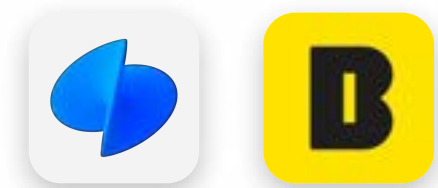
유사 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향을 정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리디자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사한 인터랙션 환경을 가진 서비스의 UI/UX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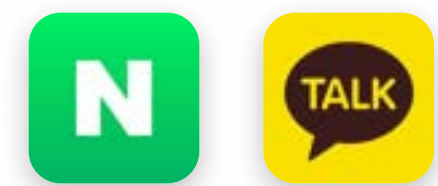
Related Services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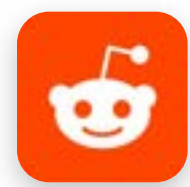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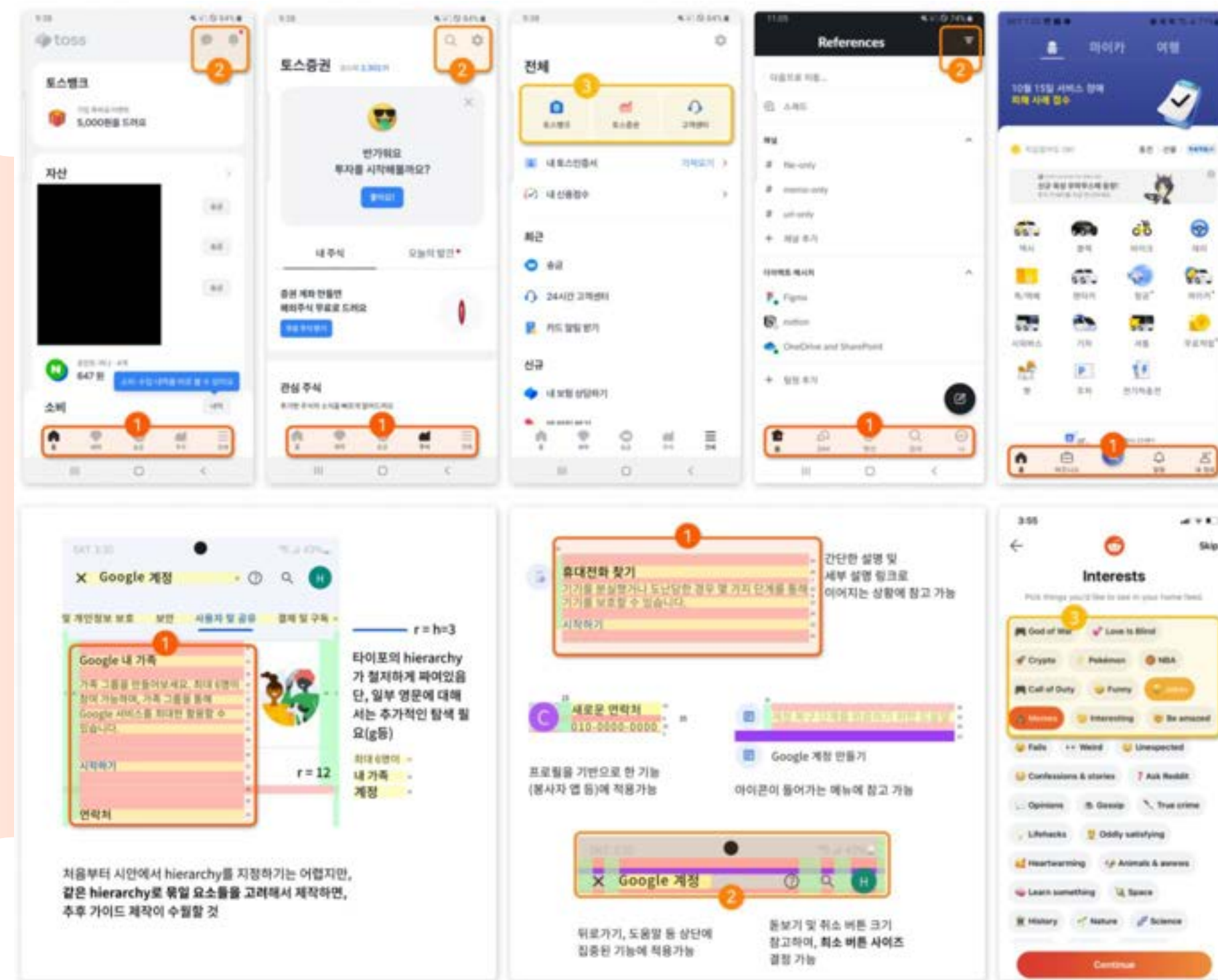
빠른 접근이 중요한
금융 서비스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다기능 서비스



해시태그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INSIGHT 1

하단 네비게이션 도입

숨겨진 햄버거 메뉴를 네비게이션으로 전환하여
핵심 기능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INSIGHT 2

FAB와 기능 그룹화 적용

긴급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기능끼리 그룹화하고,
빠른 접근이 필요한 기능에는 FAB를 적용합니다.

INSIGH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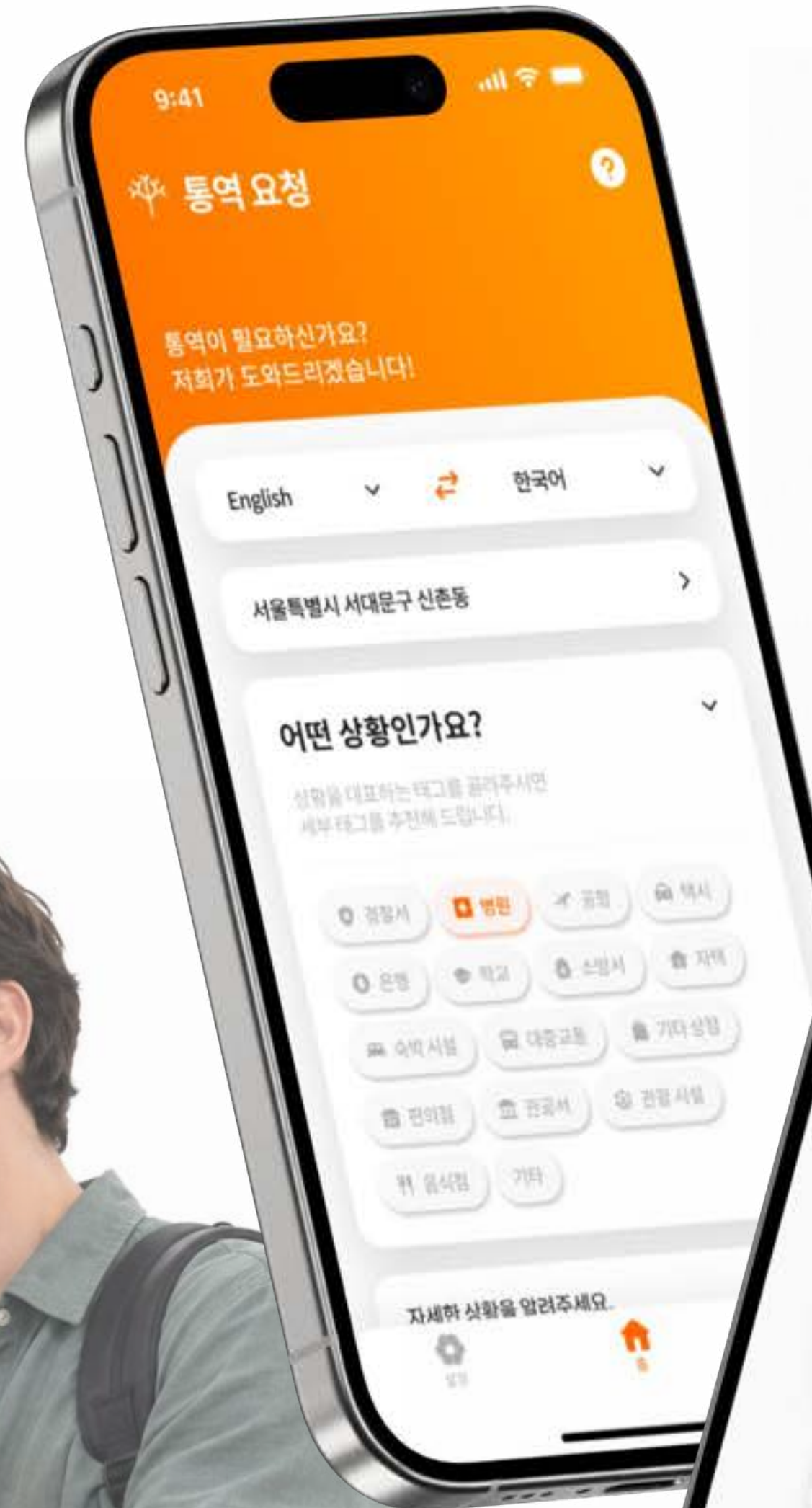
플랫폼 가이드라인 반영

네비게이션과 탭 동작, 타이포그래피 등 UI 요소에
iOS와 Android의 디자인 원칙을 반영하여
각 OS에 적합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앱, 일관된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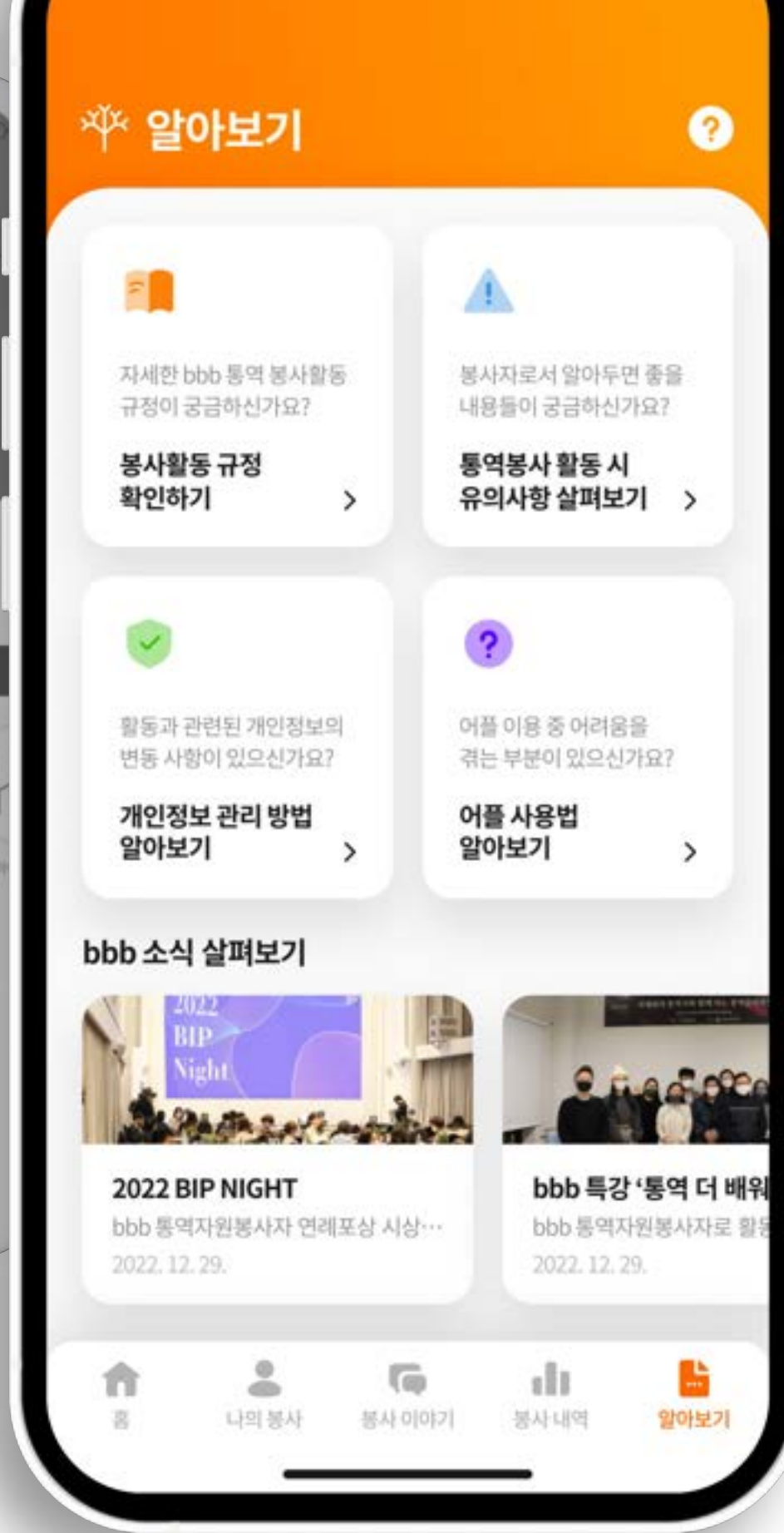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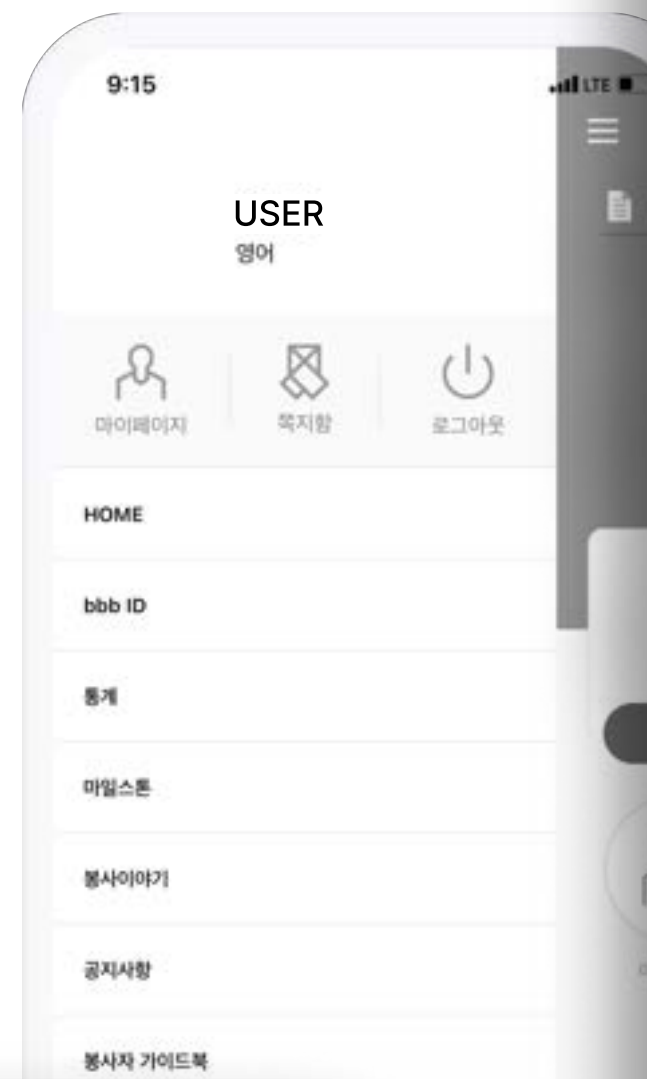
요청자 앱과 봉사자 앱의 이용 목적과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UI를 개편했습니다.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Android와 iOS의 디자인 관례와 사용 방식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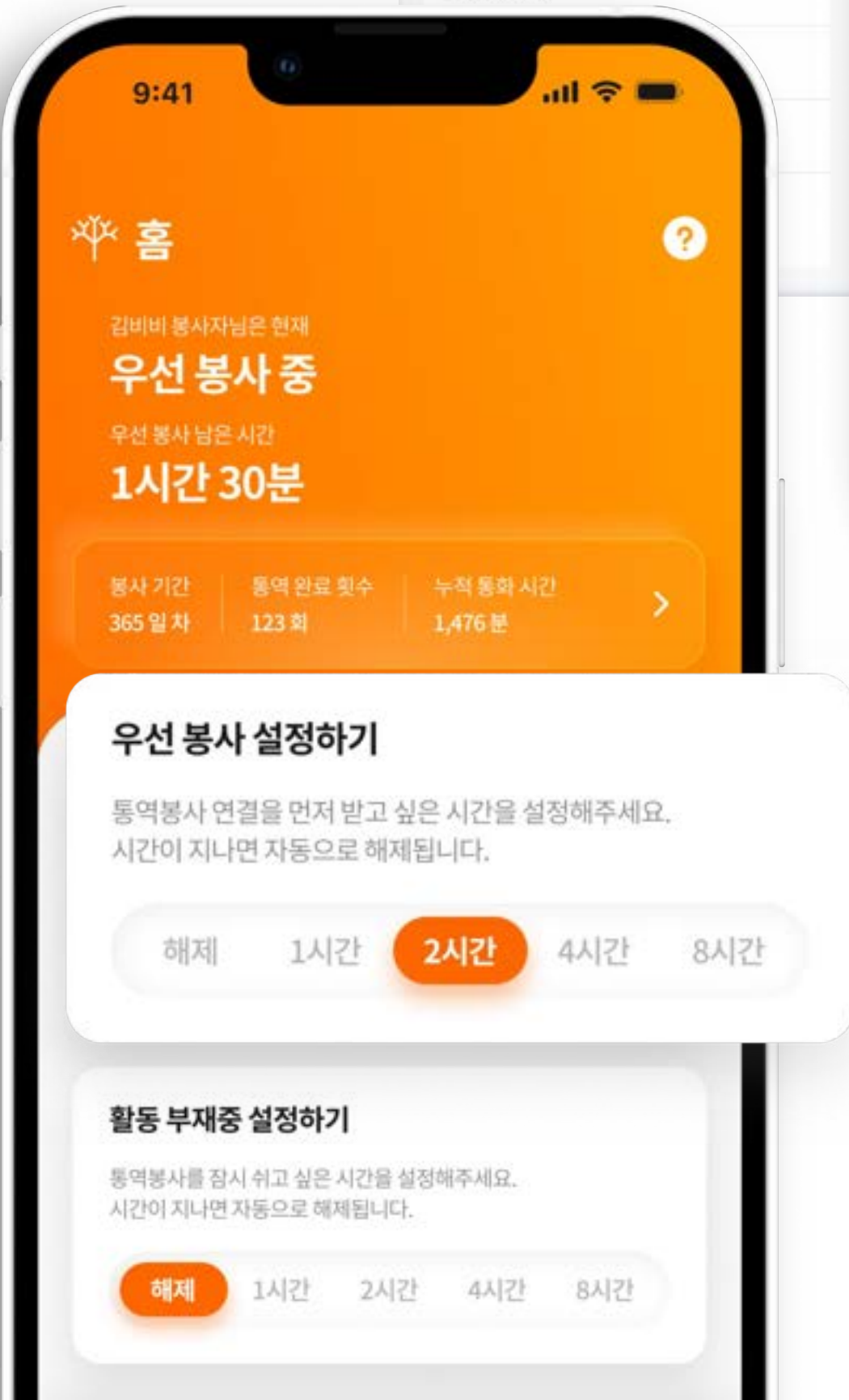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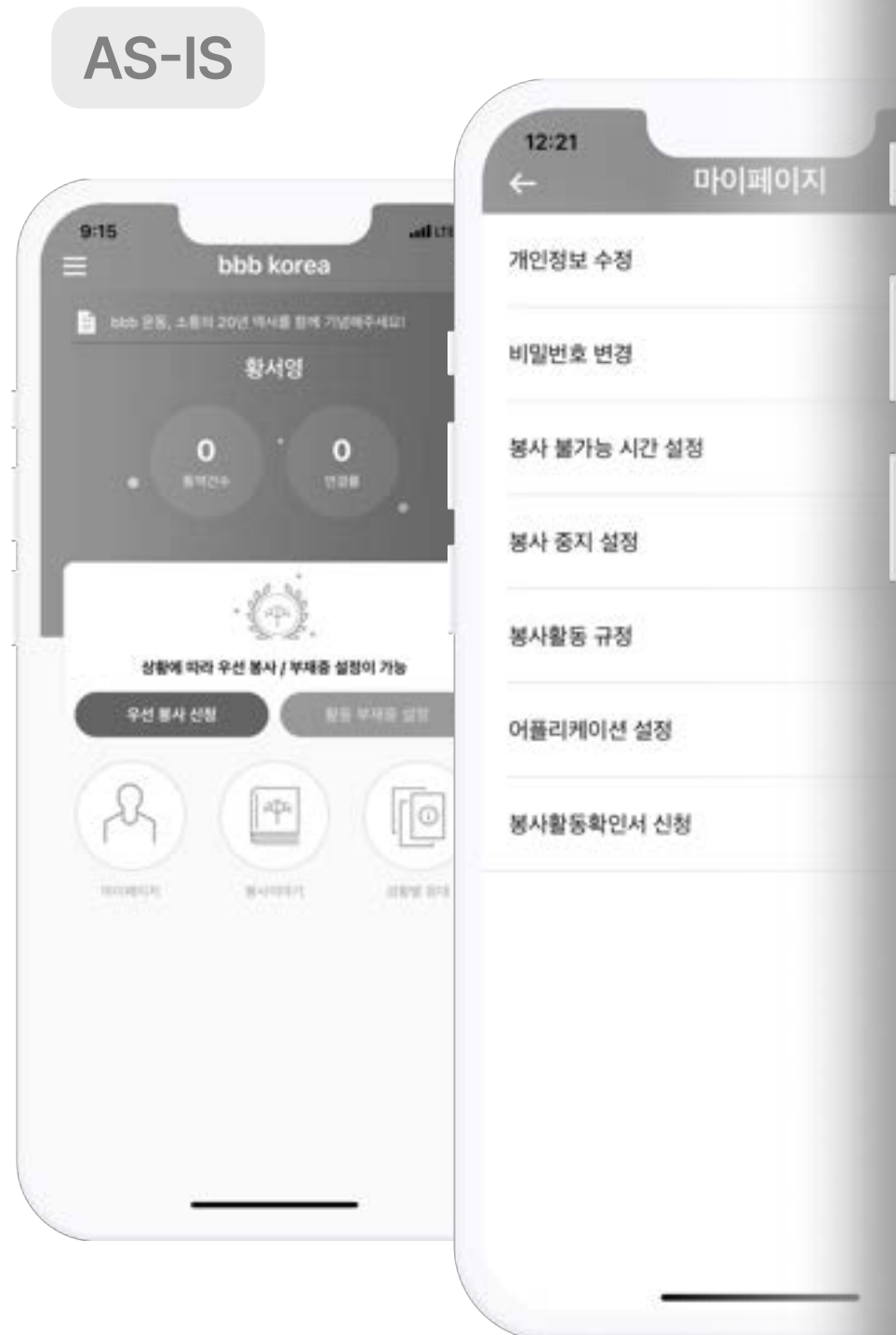


기능과 경로를 정리해 주요 과업의 단계를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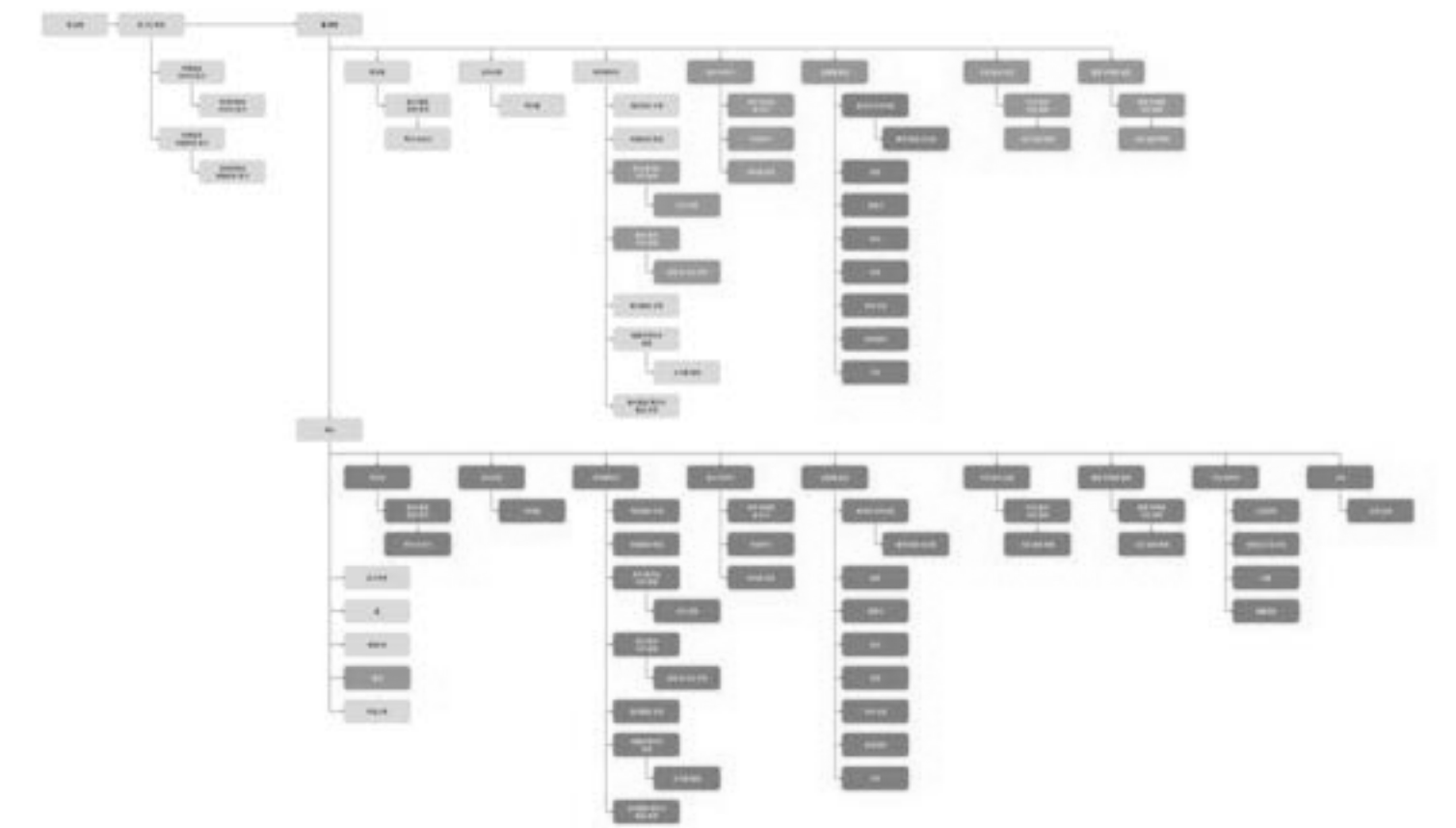
분산된 기능과 중복된 경로를 재구성해,
요청자와 봉사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방식에
더 적합한 플로우로 정리했습니다.



TO-BE



AS-IS



TO-BE



핵심 과업 완료까지의
평균 터치 횟수

1.8회 ↓

핵심 과업 접근까지의
평균 화면 전환 횟수

3회 ↓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사용자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컬러 팔레트와 서체, 아이콘, 버튼 스타일,
레이아웃, 전반적인 톤앤매너에 일관된
디자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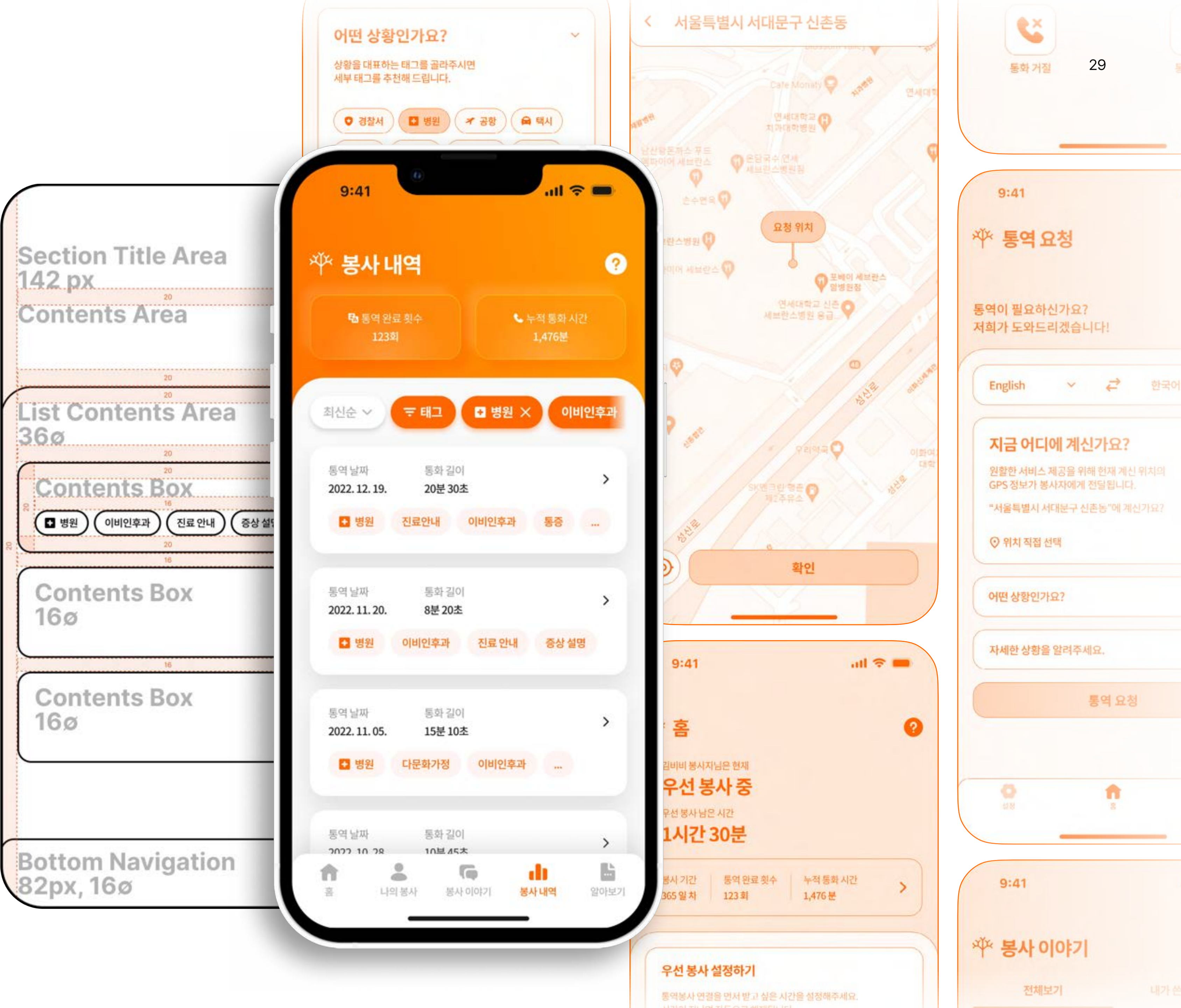
Filter buttons



Selectable but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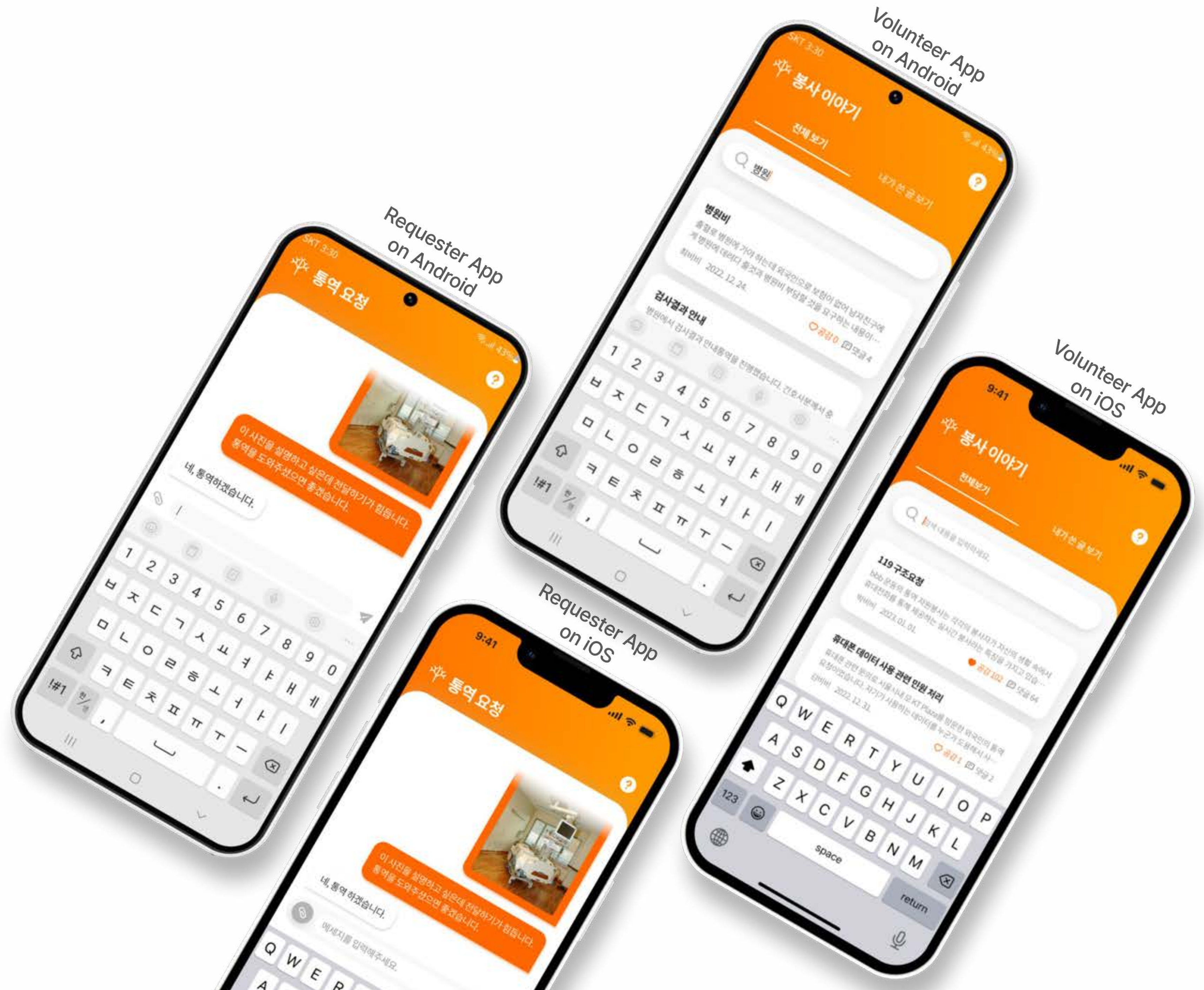


Unselectable buttons



iOS와 Android의 모달리티를 반영했습니다

시각적 일관성과 더불어 Android와 iOS의 디자인 관례와 사용 방식을 각각 반영하여 사용자의 멘탈모델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PROJECT 4

BBB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통역 서비스

TEAM PROJECT

4명의 디자이너 중 다자간 및 수어 통역 UX 담당,
핵심 기능 제안 및 UI 디자인

PERIOD

2023.03 - 2023.05

CLIENT

BBB Korea

OUTCOME

Red Dot: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3 Winner



reddot winner 2023

AI 번역이 보편화되어도 기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화적 맥락에 주목해, 사람과 AI의 강점을 살린 통역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다자간·비언어 대화와 사후 학습을 더해, 일회성 통역을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습니다.



AI가 번역하는 시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비영리기업 BBB Korea의 서비스는 통역이 필요한 사용자와 통역 자원봉사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AI가 기본적인 대화를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떤 소통에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가'의 관점으로 통역 서비스의 지향점을 고민했습니다.

Current Limitation

연결 후에야 알 수 있는 요청 상황과 목적

봉사자 매칭



통역 연결



상황 설명



통역 진행

기계 번역이 놓칠 수 있는 문화적 맥락

지역 방언

문화 규범

슬랭

관용 표현

억양

완곡 표현

비유적 표현

일대일 음성 통화에 한정된 지원

미지원



다자간 대화



수어 대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배움과 기여

"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통역 요청하시길래 이번에는
쓸 수 있는 표현 몇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통역해 드렸는데
감사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서 씁쓸했어요."

"그 때 통역 해주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다시 연결될 여지가 없어서 아쉬워요."

기술이 넓은 통역, 사람이 더하는 이해와 연결

AI를 사람의 대체자가 아니라, 기존 전화 통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로 배치했습니다.

기술은 요청 맥락을 미리 정리하고,
다자간 대화와 수어를 포용하며,
이용 기록을 다음 상황에 활용하게 합니다.

사람은 문화적 뉘앙스와 신뢰를 제공하여
기술이 놓치기 쉬운 이해와 연결을 더합니다.



맥락

통역 전에
상황과 목적 전달



상호작용

다자간·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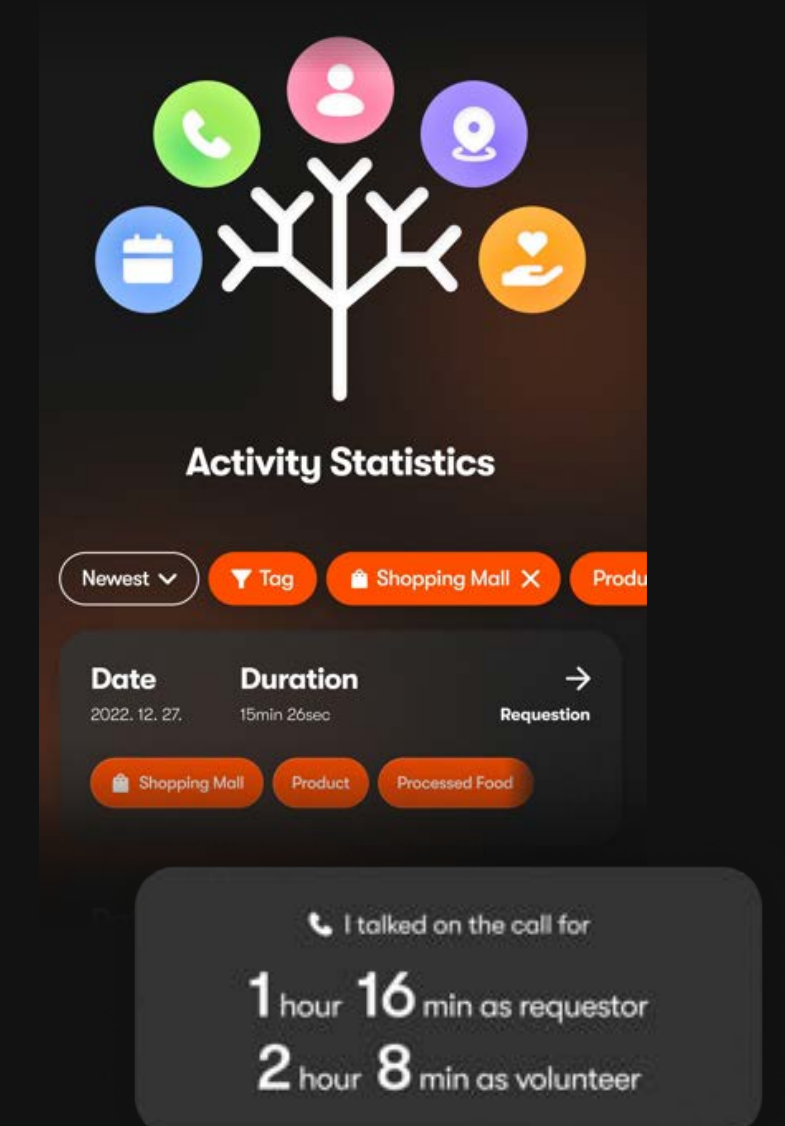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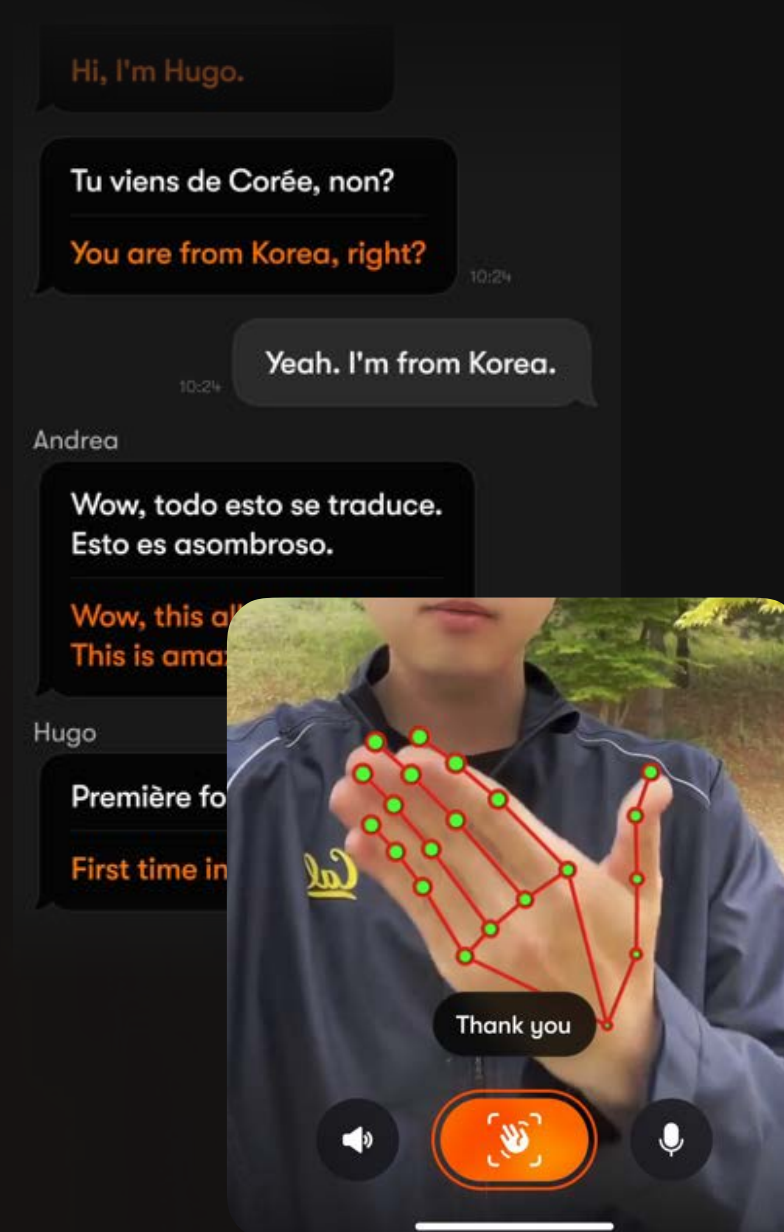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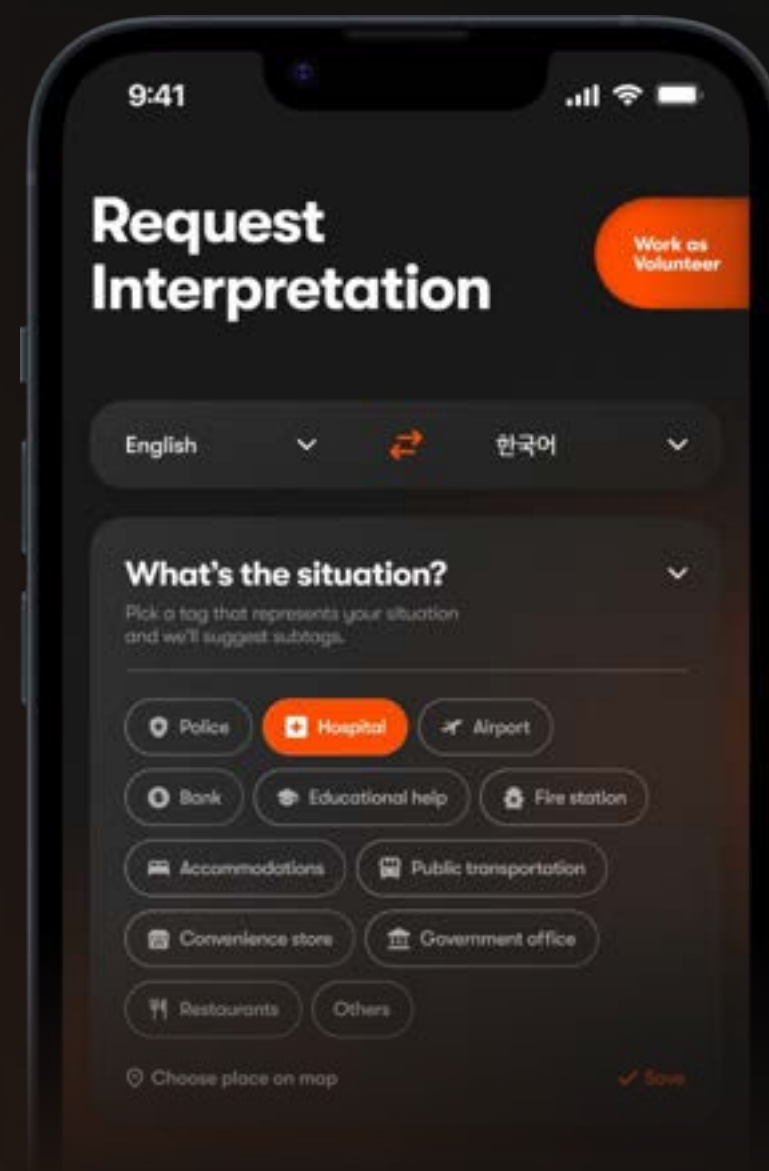
연속성

통역 이용 기록을
다음 상황의 준비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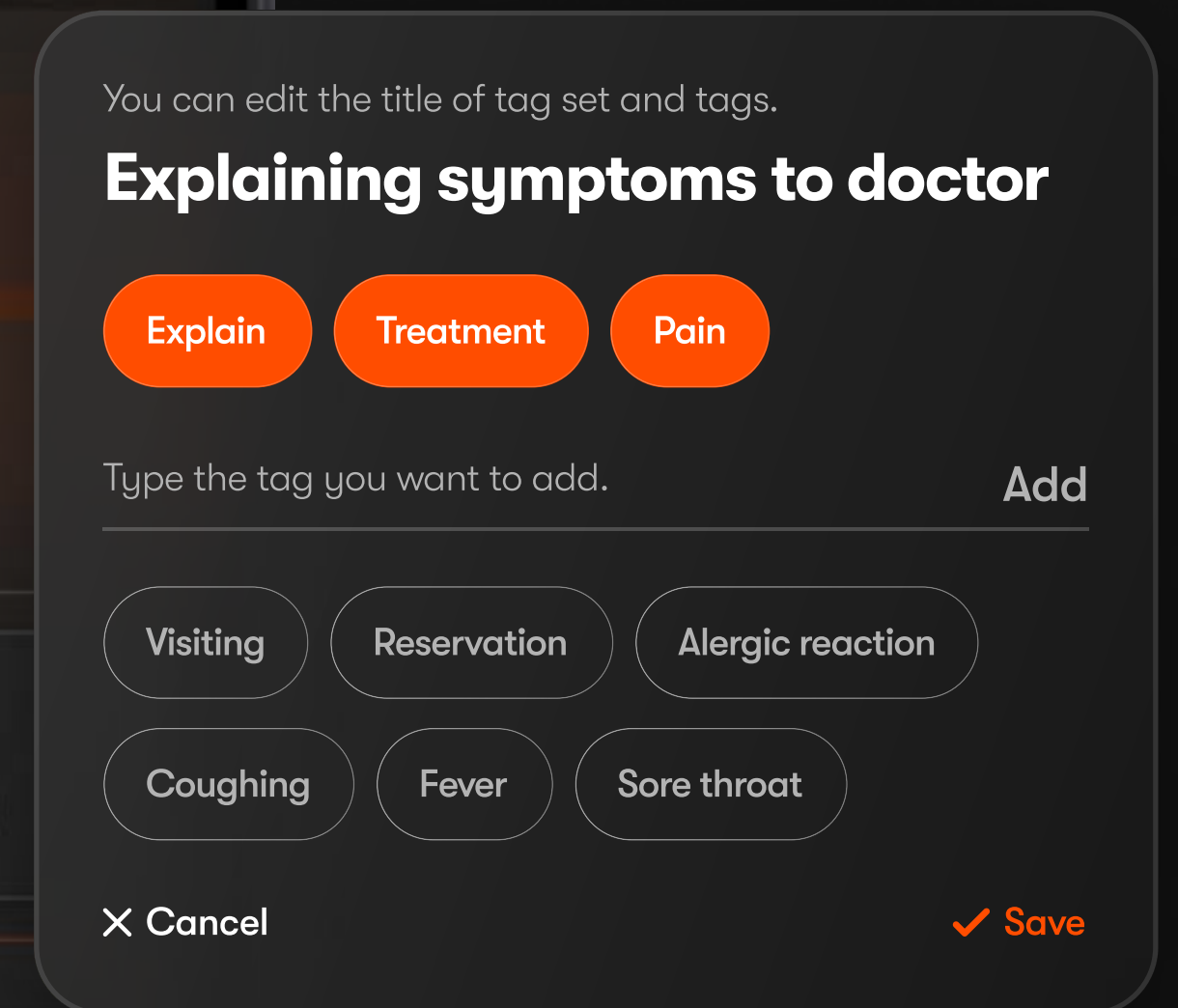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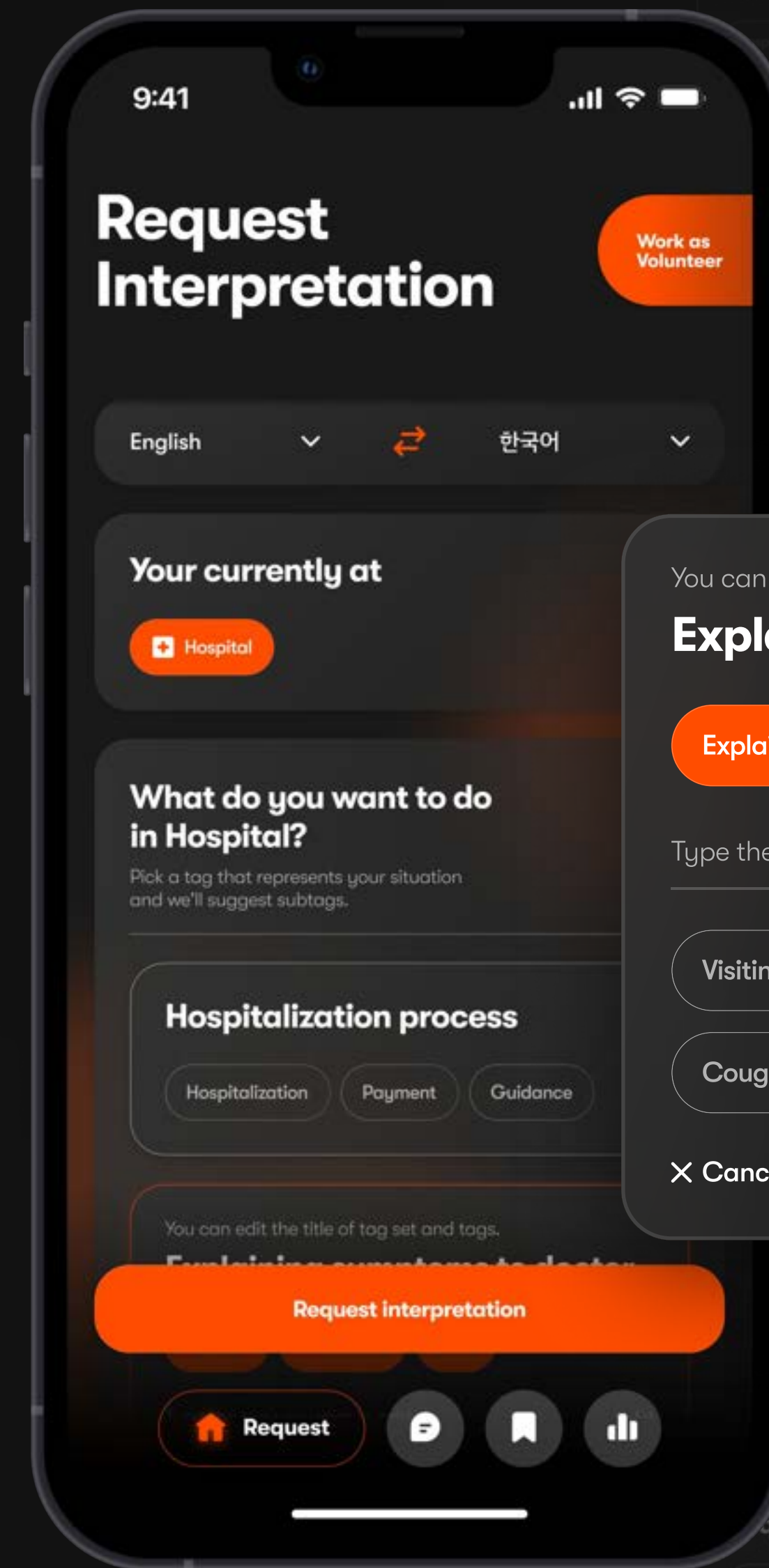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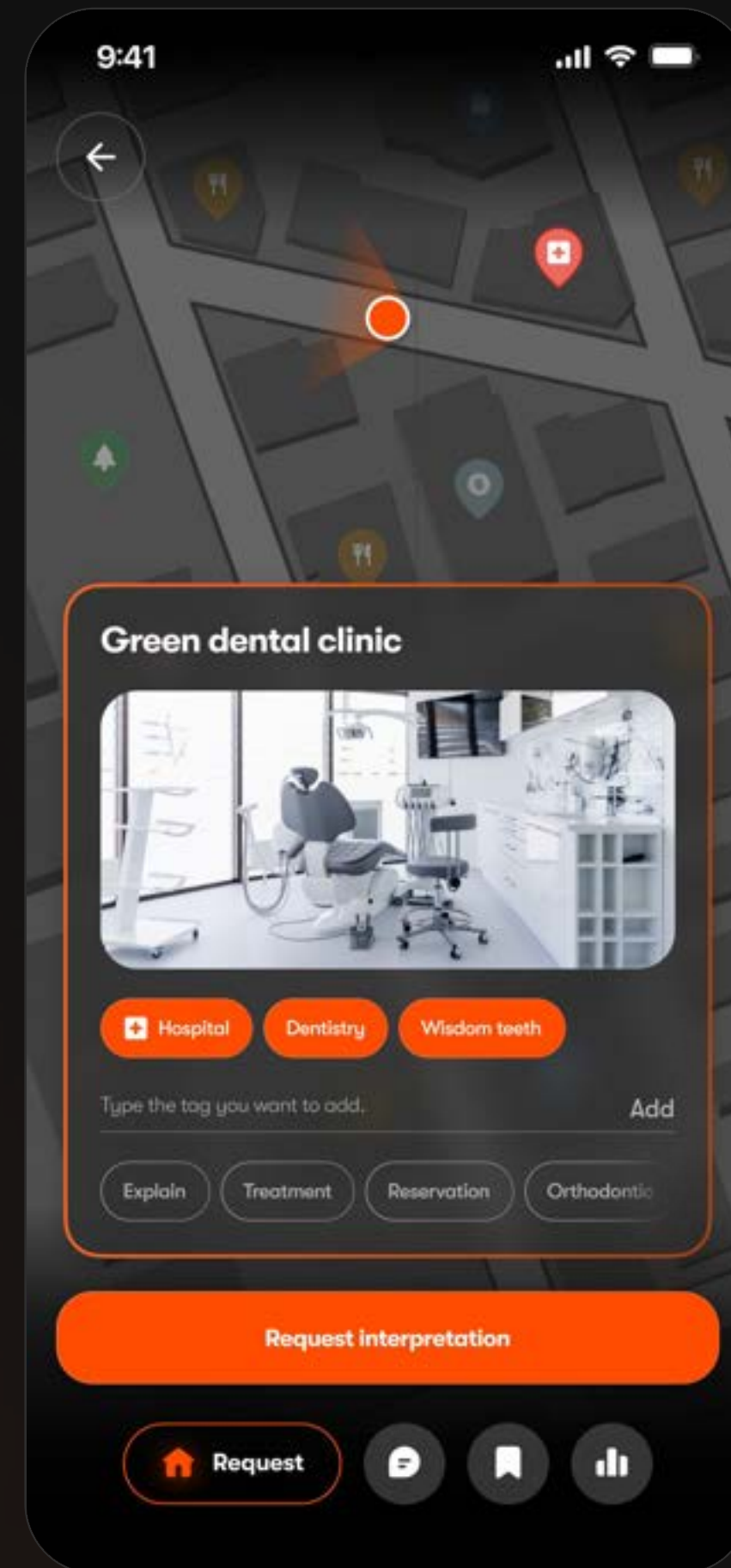
도움의 영향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통역 전, 상황부터 전달하는 요청 방식

기존에는 통역 봉사자가 연결된 뒤 사용자의 위치와 목적, 긴급도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 전에 상황 태그를 선택**하면
AI가 맥락에 맞는 태그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봉사자는 연결되는 순간부터 **요청 배경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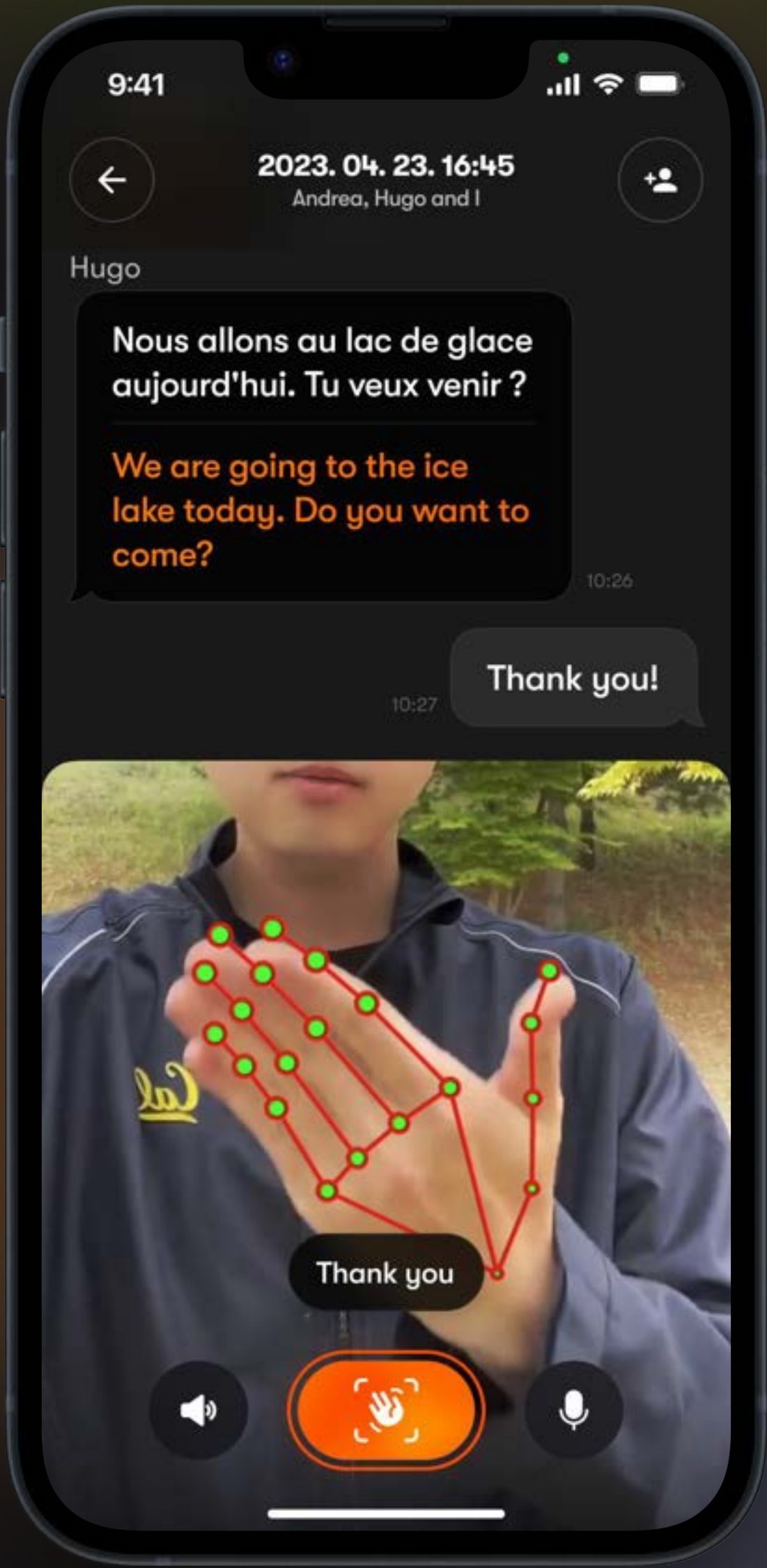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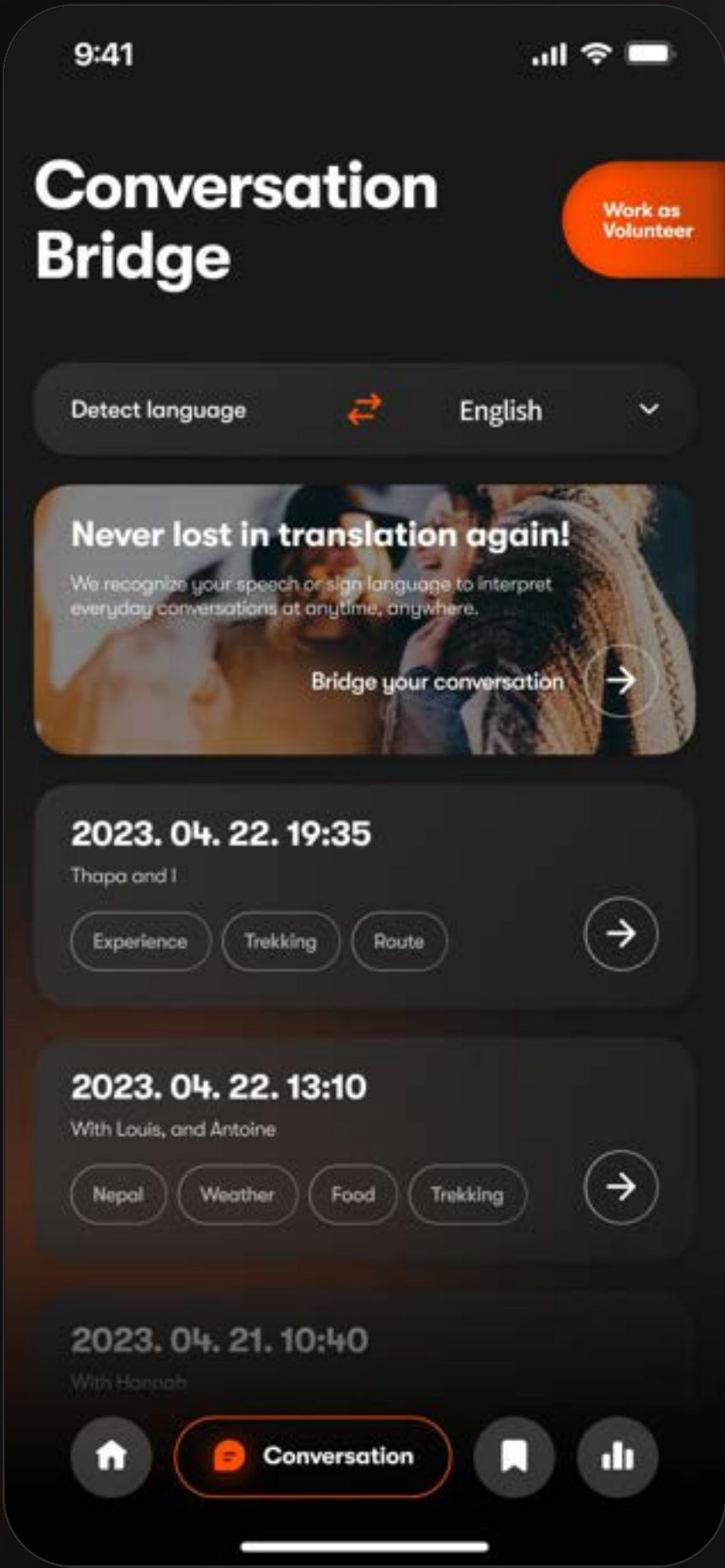


여러 언어와 대화 방식을 포용하는 실시간 통역

기존의 1:1 음성 통화는 여러 언어가 동시에 오가거나
수어 사용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힘을 빌어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자와 대화 방식을 다루는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AI는 **다자간 통역**에서 화자와 언어를 구분해
각자에게 번역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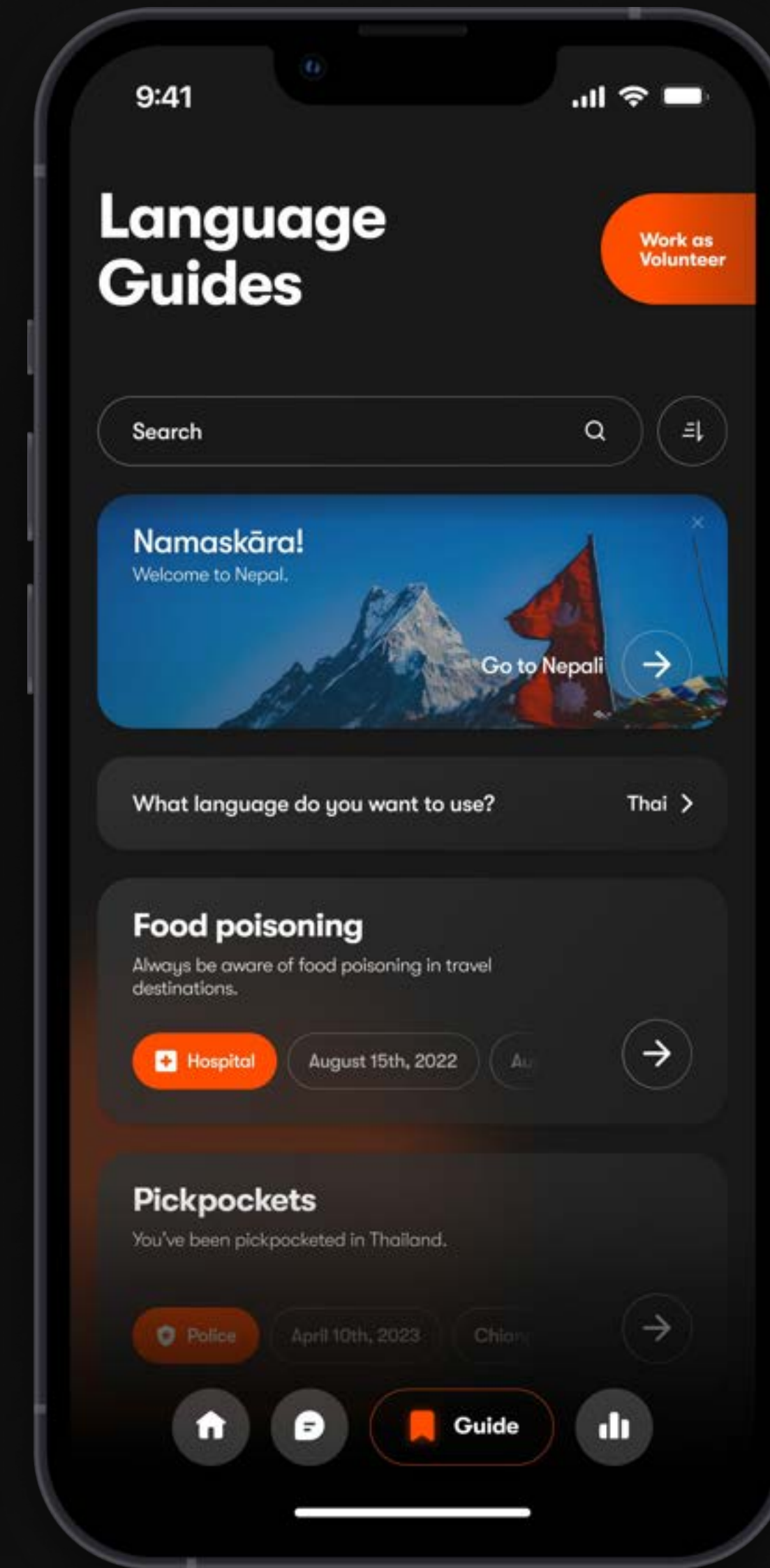
수어 통역에서는 카메라로 수어를 문장으로 바꾸고
상대방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달합니다.



통역 내역을 다음 상황에 활용하는 언어 가이드

통화 후 잊혀지는 통역 표현과 문화적 정보를
다음 상황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가이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위치와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표현,
이전 대화 관련 문장, 문화적 주의사항을 추천하여
언어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학습 자산으로 연결합니다.



도움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어갈 수 있는 활동 기록

기존 서비스에서는 통화 이후 봉사자가 자신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역 시간, 장소, 상황 내역과 주고받은 감사 인사를 기록하여 한 번의 통역이 자연스럽게 다음 참여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Mostly, I helped people who faced the situation regarding

Lost Article

Lost Article	16 (33.3%)
Payment	10 (20.8%)
Car Accident	8 (16.7%)

Mostly, I helped people who faced language barrier at the

Police Station

1st	Police Station	16 (33.3%)
2nd	Hospital	14 (29.2%)
3rd	Airport	12 (25.0%)

I've been contributing to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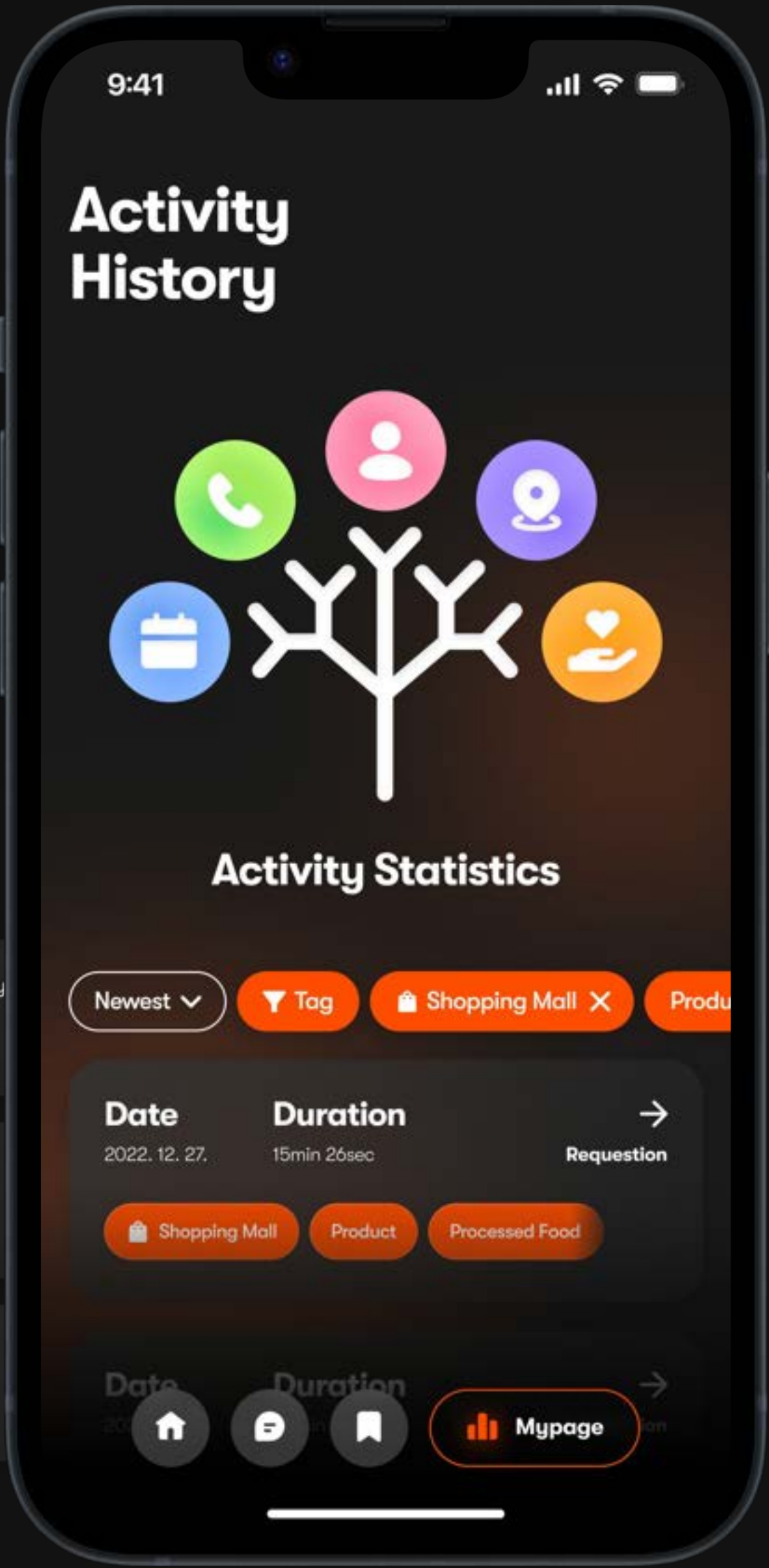
93 Days

I talked on the call for

2 hour 8 min

Till now, totally I helped

48 People



9:41

History Details

Date of Translation

2022. 10. 17.

The way of call

3-way call

Duration

15:34:59 - 15:39:45

04m 45s

Tags

Shopping Mall Product Refund Location Payment Change Kind Translation Accurate Communication Smooth Conver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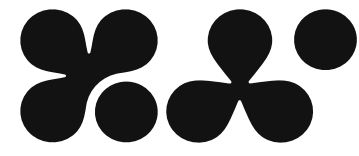
The situation I helped

A Chinese person called me and asked me if I could change the size or refund it because I bought clothes from a shopping mall called Musinsa, but I applied for a purchase in a small size and it seems to have been sent.

I called the customer service center and tried to connect to make a three-way interpretation, but the Musinsa customer service center couldn't connect at all and kept failing. Then, I called Lotte courier and searched with invoice number, confirmed that the item has not arrived yet, contacted Musinsa in China to ask if it is possible to refund or change the size, and informed them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exchange or refund due to the regulation.

The Chinese person finished the translation with a thank you for interpreting.

Share with volunteer stories



감사합니다

CONTACT

MOBILE

010 3003 5652

E-MAIL

hseoyeong.design@gmail.com

LinkedIn

[linkedin.com/in/h-seoyeong](https://www.linkedin.com/in/h-seoyeong)

Website

<https://seoyeong-hwang.com>